朝鮮日報 夕刊 八日(水) 本紙夕刊十二面

藏相의豫算編成方針

物資需給調整强化 國防第一主義로

爲替水準維持、生産擴充圖謀

(寫眞은 池田藏相)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今月下旬의 閣議에서 例年대로 明年度豫算編成方針을 決定하고 右決定方針에 基하야 各省은 七月上旬부터 明年度에 要求할 經費에 對하야 調査硏究를 進行할 豫定인바 池田藏相은 明年度豫算編成方針의 中心을 戰爭目的을 達成하는데에 가장 有効適切한 方策을 講究하기로 되여 左의 諸點에 立脚하야 編成方針을 決定할 意向으로 觀測된다

一、支那事變이 長期體勢에 入한 今日 戰局의 効果를 一層有効케하기爲하야 國防의 充實을 圖함으로써 第一義로하고 當面한 戰爭目的達成以外의 一般經費는 于先 그 豫算計上을 回避할것

一、原料資材를 만히 必要로하는 經費 例하면 建築費土木費와 如한것으로 國防上에 關係업는것은 어를 遷延節減케할것

一、物資需給의 調整을圖하는 原則에서 豫算과 아울러 어에伴한 物資需給調整書를提出케할것

一、國際收支均衡、爲替水準維持를 圖하기爲하야 海外에 支拂하는 經費는 不得已한 것外에는 可及的限 國産品을 代用케하도록考慮할것

一、輸出振興、生産의擴充을 圖함에 必要한經費는 이를 計上할것

一、傷病兵保護及 銃後國民生活安定을圖하려하는 所要經費는 可及的限 計上할것

消費統制、物價抑制案

【東京電話同盟】池田商相은 新段階에 들어간 對支作戰에 對應하야 軍需資材의 供給獲得及 物資調整의 具體的方策에 關하야 腐心中인데 企畫院으로서도 現下의 情勢로 보아 무슨方法으로든지 一層積極的消費의 全面的統制와 物價抑制의 手段을 講究할 必要가 잇다하야 具體策을 考究中이든바 겨우成案을 어덧스므로 近近瀧總裁는 池田商相과 協議하야 그結果에 따라 英斷的 方法으로 從來의消費統制範圍를 擴大하고 그徹底를 期할터이다

大谷拓相歡迎會 十三日天香園서

目下北支視察中인 拓務大臣大谷尊由氏는 歸任途中 京城에서 數日間滯留하며 總督府當局其他 各方面과의 懇談을 兼하야 實情視察을하기로 되엿스므로 尹德榮 林繁藏 朴榮喆 朴興植外七氏가 發起人이되여 十三日午後七時半부터 府內仁寺町 天香園에서 歡迎懇談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政友會總裁問題 和協機運이濃厚

【東京電話同盟】鳩山、中島各總裁候補의 拮抗으로 政友會의 黨情은 全혀激化의一途를 더듬고잇서 兩派가서로 必勝을期하고 貴衆兩院議員分野를 確立코저努力하는同時에 勝敗의鍵을掌握한 地方代議員獲得에 狂奔하고잇서 來二十日 黨大會의 選擧準備에 汲汲한形便이다 其間에잇서 압서 黨의各機關의 協力을求하야 候補者의 單一化를 圖謀할것을 提議한 長老會議의 提議가 端緒가되여 漸次和協運動의 機運이醞釀되고잇는것은 特히注目된다 即和協에關한 發言은六日의 東北、北海道會及 七日의幹部會에서 暫間잇섯는 程度로 아직全貌를 나타내이기에는 이르지못한바 六日砂田幹事長은 三土久原、芳澤等各長老를 歷訪하고 和協工作에對하야 意見을 求하엿고 八日은 川村長老를 訪問하기로 되엿다 이와併行하야三土氏를 推擧하는一派는三土氏의出馬의機會를 要望하고 和協運動에 進出하고잇스며 또、政治的으로 無色라고보이는 中立派는 鳩山、中島兩派의 抗爭을不當視하야 愛黨的立場에서 和協의機運을 나타내고잇스며 그리고 反鳩山派로서 中島氏의 總裁에도 贊同치안는 一派도 이에 合流하야 和協의空氣는 相當히進展되는模樣으로 和協工作의 今後進展은자못 注目된다

總裁問題로 岩元代議士脫黨

【天津八日發同盟】鹿兒島縣第二區選出政友會 代議士 岩元榮次郞氏는 數個月來 支那各地皇軍을慰問中이든바 七日北京에돌아와 처음으로總裁問題를알고『重大時局에 際하야 國策問題를 不顧하고 不急한 總裁問題로 內紛을 惹起함은 天下의 公黨으로서 遺憾이다 余는 如斯한政黨에 籍을둠을 질기지안는다」는 理由로 七日 天津에서 電報로써 砂田幹事長에게 脫黨屆를 提出하엿다

支那軍의內部抗爭 漸次熾烈化

【紐育七日發同盟】繼續하는敗戰으로 最近의漢口는 全혀混亂狀態에 陷하야 國共分裂 或은 西南派離反說等이 자조 傳하고잇는바 七日紐育에 達한 上海發UP電은 支那軍內部抗爭及 國民政府部內의 內紛을 左와如히 報道하고잇다

漢口로부터 上海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支那軍의 內部抗爭은 바야흐로 그頂點에 達하야 國民政府部內는 西南派의分裂에 脅威되여 蔣介石이 廣東防衛에 充分한 援助를 주지안는것 蔣介石의 中央軍麾下를 隴海線으로부터 撤退케한 것等으로 蔣介石과 李宗仁의 關係는 只今 危機에 直面하여 엿다는 것이다 但情報는 確實한것은 아니나 上海外人側及 消息通側에서는 支那軍의 어가는 內紛은 잇슬수잇는것이라하야 놀래지안코잇다 그리고 漢口에 戰果가 擴大되기까지는 支那軍의 戰線統一은 겨우 維持될것이나 漢口戰이 不得已 一旦開始되면 蔣介石은 그麾下의軍隊를 動員하야 漢口를 防衛하느냐 안하느냐의 最後의 斷案을 나리지안흘수업다 萬若蔣介石麾下의 中央軍이 漢口防衛에 當하지안흘時는 그때야말로西南派는 蔣과袂別하고 日本軍의 進攻을 回避하기 爲하야日本과 休戰을 考慮하기로 이를것이다

連續的我猛爆에 廣東省當局狼狽

【香港七日發同盟】連日에亘한我 廣東空爆은 猛烈을極하야 五日까지에 判明된바에依하면 敵에게준 損害는 省政府 憲兵司令部建物의 大部分 廣九、粤漢兩鐵路의 破壞物約半分、서면는干應權力廠、中山大學等으로 모두敵에 高角砲其他軍事施設을 整備한곳인데 軍需工廠은 커장損害가 多大하다 廣東市內外의 人心動搖는 甚하야 各方面으로부터 廣東省政府에對하야 極히無責任하다는 非難을퍼붓고잇서 廣東軍當局도 極度로 狼狽하야 中央에援助를 자조求하고잇는바 漢口의蔣介石은 隴海線方面의敗退에 對한 防備에奔忙하야 南支로向하야 飛行機를보낼수업슴은勿論 어대로 放置한다면 內部省民의不平은어는때勃發할는지알수업는形勢이다

臨時議會召集論 閣內一部에有力化

近衛首相

【東京電話同盟】改組 更生된 近衛內閣은 名實함께 戰時內閣體制를 整備한後 徐州、開封을 占領하고 다시 鄭州、漢口에 肉薄하는 戰局의 急進展에 對應하야 蔣政權을 潰滅시켜 東亞永遠의 平和를 確立하려는 事變의 目的을 達成코저 戰果를 一層擴大케에 注力하는 一方 對內的으로는 諸般의 革新方策을 實行하기로 되엿는데 最近閣內의 一部에는 事變所期의 目的을 達成키 爲하야 臨時議會를 召集하라는 意見이 有力하게 唱道된것은 자못 注目을끈다 即 그 理由로는 蔣政權은 方今 步一步 沒落의 一途를밟고 잇스나 이를 一擧에 崩壞케하기爲하야 我國 各般의 戰時財政 經濟體制를 一層 高度化할 必要가잇는 一方 改組後의 近衛內閣의 施政方針을 中外에 闡明하야 그氣魄을 內外에 聲明함으로써 더욱 國民의 緊張과 協力을 要望할 必要가잇다는것인데 그趨移는 자못 各方面으로부터 注目을 밧고잇다

鄭州陷落目睫間 我軍四面으로肉薄

【石家莊八日發同盟】河南의大平原을橫斷、京漢線南端○○에 向하야 猛進中의 友軍과 呼應하야 開封을攻擊한 ○○部隊는繼續敵을 追擊하야 隴海線으로西進七日午後 二時開封 鄭州中間에잇는 要衝中牟를 占領하엿다 이리하야 鄭州를 指呼間에 肉薄하엿슴으로 鄭州의 敵은全혀 四面重圍에 빠지게되엿다 即東으로는 어精銳部隊가 肉薄하고 南으로는 ○○部隊의進擊에 西로가려면 鄭州以西는 我砲兵의 有効射程 距離內에잇서 敵은文字그대로甕中之鼠로化하엿다 이리하야 蔣政權이 最後의 牙城으로잇는 鄭州의 陷落은 이미 時間問題로 化하엿다

總司令胡宗南脫出

【石家莊八日發同盟】開封鄭州防衛總指揮로 第一軍團長인 胡宗南은 開封이陷落되자 到底히 鄭州를직힐수업슴을 깨닷고 또隴海線南側地區西方 京漢線○○方面에 進擊하는我軍에게 漢口로의退路가 遮斷될것을 두려워하야 手兵을收拾하야 재빨리 京漢線南端인 ○○에遁走한것이判明되엿다 鄭州의敵은 最高指揮官이 逃亡하므로말미암아 動搖되야 제마음대로의 行動을하야 그大部分은西方及南方에遁走 十五個師二十萬이라고 稱하든敵의 大軍도 이미그太半은 後方으로 逃走한것가티보인다

開封西方要衝 隴海線○○占領

【石家莊七日發同盟至急報】隴海線에 沿하야 西進中이든 ○○部隊는 七日午後二時開封西方의 要衝○○을 占領하엿다

中牟는어떤곳?

【北京八日發同盟】開封에서潰走한敵은 鄭州와의中間要地인 中牟縣城으로 一旦集結하야 抵抗의態勢를取하고잇스나 決河와가튼 我進擊에抵抗하지못하고 마츰내七日 西進○○部隊에依하야 中牟도 占領되여 城頭노픈日章旗를 飜揚케하엿다 中牟는 隴海線上 開封 鄭州間에잇서서 鄭州까지 三十五키로인바 敵이漢口防衛에 最大據點인 鄭州를死守하는대의 第二前衛地帶로 되여잇던것이다 河南大平野에빠친 一望千里附近에 山影을 볼수업는 人口五六千의 小縣城이나 古來中原에서의 軍閥이 角逐하던 곳으로 幾多의 史跡이 殘存되여잇다 春秋時代에 洛陽에都邑한 鄭·開의 東方으로부터 中牟에서 막의 爭覇를 「晉車千乘在中牟」라하야 크게 軍勢를 떨치든곳이라고 傳한다 周代의 鄭州는 全 直接會戰下에 直面하게되엿다

本社參觀

▲商工俱樂部員十五名引率者金爵山氏

時事解說

弗平價切下說

世界金保有高의 太半인 百數十億弗의 金을 保有하고도 不況에 苦悶하는 米國에서는 또 弗貨切下說이 떠돌아 世界의 耳目을 자아내고잇다 勿論 모겐도財務長官의 否定聲明도 잇섯서 이것이 實現한다는 風說이지는 모른다 米國의 不況은 最近 深刻化하야 株式市場은 이 不況에 依하야 萎縮되고 ... 米國財界不況은 루즈벨트 大統領의 ... 實行을 期待하는 ... 米國의 內情이 어려한 形便이므로 或은 루즈벨트大統領이 景氣恢復의 最後의 努力으로 弗貨平價切下를 다시 試驗해보고저 大統領에게 附與되어잇는 金價變更의 權限을 行使할 意向인지도 알수업다。

◇ 그러나 米國의 金買上價一파인온스 三十五弗을 四十一弗로 引上하는 結果는 單히 米國國內의 인풀레 效果에만 作用할것이 아니오 이것은 곳 倫敦金塊市場에 反映하고 이어서 世界各國의 金價에 衝動을 주고 따라서 通貨、爲替、物價에도 各各 큰 影響을 미칠것이니 萬若弗平價切下에依한 金價의 大幅引上이 實現되는때에는 世界景氣의 一大變動을 招來하게될것은 容易히 想像할수잇는일이다。

日本新聞協會 第二十六回總會

【東京電話同盟】日本新聞協會第二十六回總會는 八日丸之內東京會館에開催、全國으로부터 參集한會員二百餘名出席、總裁東久邇宮殿下께서는 御公務때문에 合臨하옵지못하시고 松本同盟專務의 開會辭가잇슨後 北海타임스相談役의令旨奉讀、總裁猪一郞氏의 東武氏 座長席에나가고 光永星郞氏가 開會辭를述한後 議事에 드러가 昭和十二年度庶務會計報告、昭和十三年度豫算、協會를社團法人으로하려는件을附議可決、다시出征皇軍從軍新聞人에 對하야 感謝의意를披瀝、다음殉職新聞人의 慰靈祭에드러가 午後七時부터 四階大宴에 晩餐會를開催하고 各閣僚以下二百餘名出席 懇談裡에 同九時散會 大會第一日은 이로써終了하엿다

本社辭令

咸北支社長 金載源
依願解職 (六月八日附)

人事·集會

▲松原純一氏(朝鮮銀行總裁)八日京城驛發渡東
▲鹽原時三郞氏(總督府學務局長)總督隨行하야 八日午後七時五十分京城驛發忠北에
▲下村進氏(總督府保安課長)黃海道署長會議出席次八日午後二時三十分京城驛發列車로黃海道에
▲宋燦道氏(總督府外務部事務官)滿洲國出張中七日朝歸任
▲森長文氏(總督府張家口出張所長)十日午後二時三十分京城驛發車로赴任
▲湯山濟一氏(京城府永登浦出張所長)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 由緖기픈 朝鮮基督敎靑年會 女子基督敎靑年會 勉勵靑年會 各各 解消하고 日本基督靑、日本女基靑에 合流。

◇ 鐵換是移의 時代的 趨移。

◇ 鐵路署에서 關係치 안타는 渡航證明書를 水上署에서는 必要하다고 反駁。

◇ 當局에 一定한 方針이 업는때문인가、方針의 解釋如何에 달린까닭인가。

◇ 도대체 玄海灘을 건느는데 渡航證明을 必要타 하는것이 모를일。

◇ 內鮮一體 가튼 領土內에서 旅行證明이 무엇하나?

◇ 斷然 證明制度를 廢止함이 어떠할까。

◇ 金羅線 求禮附近서 列車轉覆으로 重輕傷者 十四名。

◇ 每擧 할 안듯는 뿌레키를 가진 機關車、猪速主義로 敷設한 軌道、無責任한 運轉手가 事故의原因。

◇ 會社、監督當局의 留意點。

南總督、今朝 忠北視察登程

去三十一日부터 四日間에 亘하야 忠南道管內農村을 視察한 南總督은 政務繁忙의 寸暇를利用하야 繼續하야 各地方을 視察할 意圖를가지고잇든바 今八日午前七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 近藤秘書官 一人만을 帶同하고 다시突然 忠北道管內農村視察의途에登程하엿다

過般 忠南道視察때에 얻은 地方各般의 實相과및 이에對한 今後의施策과 注意事項等에對하야는 이미南總督이 七日의定例局長會議에서 所信을披瀝하야 總督府各所管局課에 이를遂行하도록 督促하엿는바 視察한結果가 即時具體化되고잇는것이 特히注目되는點이다 今回의忠北道視察도 亦是全然豫定을 定하지안코 總督의 마음내키는대로 地方의 實態를 把握하려는것이다

黃澗驛에到着

【黃澗電話同盟】突然忠北道視察에 登程한 南總督은 八日午後一時五十六分黃澗驛着、金忠北知事、安田警察部長等의 出迎을밧고、總督自身이 마음나는대로 忠南北道農村視察에 向하엿다

太田光雄氏에 南總督感謝狀

朴烈에게 慰問狀과 金員을보내여感激시킨出征軍人 太田光雄氏에게 八日南總督은 如左한感謝狀을發하엿다

感謝狀

今次事變에 際하야 出征中의 몸으로서 小菅刑務所在所者朴烈에對하야 慰問狀及金員을贈하야同人으로하여금感激케하고 同所의 內鮮在所者로 하여금 內鮮一體의强化를 目的하는事業資金獻納의 擧에나오게한데 對하야는 感動不堪하는바로玆에深厚한謝意를表하노라

昭和十三年六月八日

朝鮮總督 南次郞

太田光雄 殿

빈슨案海軍擴充費 豫算案本會議로 總額三千五百餘萬弗

【華盛頓七日發同盟】米國下院歲出委員會는 빈슨新海軍擴張法에 基하야 第一年度豫算案의 審議를 進行하고잇는바 七日總額三千五百八十萬二千弗에達하는 豫算案을可決하고 即時本會議에送付하엿다 同豫算案은 新艦十九隻의起工費 一千六百五萬弗과各海軍工廠及軍港擴張費 一千九百七十五萬二千弗이되여잇는대同問題의航空母艦起工費는計上되여잇지안타

造船所機能增大에 米官民專力

【華盛頓七日發同盟】米國官民各造船所는 機能增大에 熱中하고잇는바 海軍省建艦局長로리앙·듸포ー스少將은 七日下院歲出委員會에臨하야 同問題에言及하야左와如히 說하엿다

政府로부터要求되여잇는 新建艦計畫을 急施하기爲하야 (約…分의…)은 이를 民間造船所에 請負케할方針이다 海軍工廠의 職工은 現在二萬四千八百八十二名인바 빈슨法에基하야 建艦計畫을 完全케하기爲하야는 一九四二年까지에 職工約九萬을增加할必要가잇다

英鑛業勞働者組合 日貨排斥決議採擇

【倫敦七日發同盟】사우드·웰스鑛業勞働者組合은七日執行委員會를열고 日本의 對支行動을 非難하는 立場에서 組合에對하야 日貨排斥을 勸告하는決議를 採擇하엿다

淮南鐵道淮南炭鑛을 完全히占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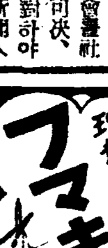
【南京七日發同盟】揚子江岸으로부터 田家庵에이르는 六十키로의 淮南鐵道는 六月五日完全히 我軍의 手中에 歸하고 繼續하야 六日淮南炭鑛도 亦田上部隊에게 占領되엿다 淮南炭鑛은 支那에서는 珍貴한外國資本에依치안는 純國營炭鑛으로鑛區는 探礦鑛區及大通鑛區에나누어서서 前者는 埋藏量二千七百萬噸 後者는 一億噸에達하야民國十八年國營으로 되엿다 그販賣區域은 蚌埠南京無錫 上海에 及하는데 同炭鑛의 占據는我軍作戰上에 寄與하는바 甚大하야津浦線南端의復舊及 運行도 더욱促進될模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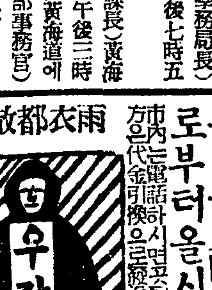
스駐日蘇聯大使 八日朝、淸津에入港

【淸津에서本社特派員吳快一發特電】今番에突然 蘇聯의길에올른 駐日蘇聯大使 스라우츠키ー氏는 家族三名을 同伴하고 八日朝六時 사이베리아丸으로 淸津에入港하엿다 船室에서 아침을마친 後 곳上陸하야 十二時出帆할때까지 市內各處를 求景하야 一般의 注目을끄럿다 氏는 記者團에는 아모말도할지안코 다만緊張된態度를 보혀줄뿐이엿다

옴 하벱프 피풍 증렴가 靑山膏

機械 鉱山 工具 農具 平壤南門通 五大商会本店 電話代表56


理想の強力殺虫液 フマキラー



여러분의 사랑하는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엿습니까 雨期는 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都散賣 우장옷
荷物自動車 雨覆
貨物 ゴム引雨具
高級 ハ型 作業用
紳士用 天幕各種
學生用 テント其他防水布一式
京城府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電話本局 二〇三七·二八番 振替京城五三〇番

博士創製한 털나는약
털나는藥 후미나인
털나는약후미나인은皮膚科專門田中醫學博士가創製한것이니대털나는대必要한適當한殺菌作用과興奮作用과營養作用을 兼與해서毛髮의發生을促하고털의脫落과비듬을防止합니다
禿頭病 ●若禿●薄毛●脫毛●白毛●가리매버서진대●둔덕지고●흉진대●男女넘대인나고其他털이적어보기흉한이는 꼭쓰라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全國到處의藥店에잇슴)
說明書申込次第進呈
發賣元 東京市芝田村町電車通り 東京藥院

看護婦大募集
資格 年令十六ー卅五 小普以上卒業者
派遣多忙至急來談但通者限
京城府永樂町二ノ八四 東京派出看護婦會 電話本局二三八八

朝報案內

家具 特價提供 安價販賣
三丁目 京城本町 電本局 (2)五〇九一番

カゴメ 가고메 ケチヤツプ 케찹
和洋食에 처서 맛잇게 잡수십시요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一致協力이 八紘에敵업다
セーラー インキ
セーラー万年筆
새로운型의十二角軸付다이아型3·00부터
一本으로太細書되는兩面書付3·00부터
東京府本町三丁目四 販賣元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マナパの本丸善
淸爽한感觸에그맛이잇는紳士의夏帽
技術의飛躍的向上에依한優秀品提供
¥10.00 ¥13.50 送·50
·또至70·00까지各種·
京城本町二丁目 丸善 振替口座京城三四二番

今八日夜뿐
李瑞求作 사나희사랑 三幕
南宮春作 流行性感冒 二幕二場
晝間映畵 一、나그네(旅路) 二、陽氣な連中
東洋劇場

『弱한이여! 당신의이름은 女子십니다』 이演劇의 女主人公의 生涯는 굿세다할가? 弱하다할가?
여러분이시여! 이편단을 배리여주소서!! 눈물업시는볼수업는가장 깨끗한悲劇에 우서라!!
六幕八場

明九日夜부터 東洋劇場에서
靑春座上演藝題
△崔獨鵑大作▽
七人의女

體育團體도全面的統制

不安全한在來團體 合倂·解散·整理斷行

邑面單位로體育協會組織을再强化 七月中統制案을發表實施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조선의체육운동을 강화철저식히기위하야 체육기관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로방침을 결정한후 얼마전에 각도지사에게 통첩을발하야 전조선각지에 산재하야잇는 허다한 체육단체의 조직체(組織體)기구(機構)의애용 수효등을 엄밀히 조사보고하도록 하얏든바 경기도를제한 십이도의것이 일전에전부도달되엇스므로 근본방침에의하야 연구검토한후 오는 칠월초순경에 통제안을 발표실시할터이다 이제그통제 방침의 내용을듯건대 현재총독부안에 조선체육협회(朝鮮體育協會)가 잇고 그가맹(加盟)단체로 각도에 도(道)체육협회가잇서서 조선체육협회는 각도체육협회를 지도감독하야왓고 각도체육협회는 당해 도내각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하야왓는데 각도체육협회가 당해도내각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한다는것은 거의유명무실에 가가워서 하등효과적이 아니므로 조금도 실제화하지못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야 이번에총독부에서는 각도체육협회를 일층강화하는동시에 종래에 업든군(郡)파목, 면(邑面)에도 공설체육협회를 설치하야 군체육협회는 도체육협회에 가맹하고 읍면체육협회는 군체육협회에 가맹한후 각각그관내체육단체를 소속식혀가지고 통제하며 지도감독하기로되는것이다 그런데 통히주목되는것은 이와가티 조선체육기관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위하야 신기축을세우는 일방 조직체가 불완전하며 내용이빈약한 체육단체는 전부 합병혹은 해산하야 체육기관의 정리를 단행하기로되는 것인데 이것은 파게각방면의비상한관심을 갓게하는것이다

武道界에先着手

基靑柔道部、武道館、講武館、硏武館四團體 講道館支部에合流를慫慂

시국의장기화로 각방면에 통제의손길이뻐치고잇는데 조선안에산재한 무도(武道)단체통제책으로 경성에서 유력한지도단체인 조선무도관(朝鮮武道館)중앙기청유도부(中央基靑柔道部)、조선강무관(朝鮮講武館)、조선연무관등네단체에 대하야 시국에대한반영된여러가지정세에따라 동경강도관조선지부에 합류하야 동지부와 긴밀한연락을하도록 하는의미에서 지난이일에 전종로서고등계가압선역이되어 전기도장의사범인 장권(張權)、한진희(韓軫熙)、이경석(李景錫)제씨에게 무도장려와 도의함양은물론이요 내선일체(內鮮一體)의깃발아래서 아프로는동경강도관조선지부와 연락을매즈라는 권유가잇섯다는데 근일중에 동지부장 조선(趙鮮)씨로부터 전기사씨를초청하야구체안을결정할 모양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도장에서 수여한 단(段)을 강도관지부에서는 종래에는 인정치 안햇섯는데 현재도장에잇는 유단자들을 다시사정하느냐가큰문제이다

美展人氣沸騰

三日間入場者近五千

조선미술계의 호화판인 조선미술전람회는 지난오일 신록욱어진경복궁(景福宮)후정회상에서빗나게 개막된이래 관람자가 운집하야 제일일은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일천사백칠십사명의 다수에 달하얏고 다시제이일은 일천륙백팔십명으로 작년이날에비하야 약삼배, 제삼일은 일천육백이십삼명으로 작년이날에 비하야 약이배에달하얏다 그리하야 칠일까지 삼일간의 누게는 실로 사천칠백팔십일명으로 작년이 기간의삼천이백육십오명에 비하야 일천륙백십육명의 격증을 보게되엇다 그리고 작품의 ...

釜山行列車에 處女가轢死

【鐵道局着電】 칠일오전 일곱시반쯤에 경부선(京釜線)청도역(淸道驛)을떠나 부산으로가던 제칠십사렬차가 청도유천(楡川)사이의 철도선로를 지나던중 경남밀양군상동면옥산리(密陽郡上東面玉山里)사는 서조이(徐祚伊)라는 열일곱살먹은처녀는 그열차 아플 가로건느려다가 그만갈려서 즉사하엿다 이때문에 그열차는 현장에서 사분동안 정거하엿다가 떠낫다

괫심한닷도산

사람치고逃走

칠일오후열시반쯤해서 부내연건동(蓮建洞)의학전문학교(醫專)압 아페서 자전거를탄 행인한명을 바다서 중상을입히재 종적을감초어버린 『닷도산』 이잇섯슴으로 보고를접한 동대문서에서는 즉시 이팻심한 『닷도산』을붓잡으려고 관하각주재소에 엄명을내려 관내를통과하는 꼬마자동차에 금족명령을내리고 날이밝도록 조사하엿스나 범인은아직도 잡지못하엿다한다 중상을입은전기행인은 부내명륜정(明倫町)일정목오십칠번지의 사호에 사는 지성갑(池成甲)으로 현장에 쓰러진채 인사불성이된것을 지내가던사람에게 구조되여 곳부근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생명에는 관계가 업스리라고한다

乞人群의 人情美談

중국인거지들 틈려잡고 거지사이에 버려진어미담이잇다 — 팔일아침본정서에는 길야정(吉野町)파출소 평하(平野)순사가 거지하나를 다리고와서 어떠케 처치할것이냐고전호사정을보고한일이잇섯다 그사연인즉이거지는 본적을 신석(新潟)현에두고 시내를 배회하는 화전사랑(和田四郞)(一八)이란자로서 지난오월십오일부터 고시정(古市町)삼십오번지 빈집에서 신병과기한에신음하고잇섯는데 이비참한것을본 중국인거지 필수정(畢秀亭)(三○)이란사람이 자기는 거지로저그날의 연명에 쫏기고잇는터이나 사방으로 도라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저가며 먹을것파약을 어더다 이소년을 돌본 것을 평하(平野)순사가 감격하야자기의 수입에서 얼마간의비용을 떼여가지고 고시정신구번지에 유숙시키는한편 전기중국인거지와협력하야 날마다 여가잇는대로 간호하얏스나병은 날이갈수록 더하야가지안흐므로 무순방책을대여달라고보고하야왓다 그래서동서에서는 곳경성부군인도하야 보호하도록하엿다

專門學校生이中心

遊興費調達次 窃盜團組織

百貨店女店員、女給을傘下에 本町署에서一黨捕盡

학생의풍기문제가 여러방면으로 말성이되고잇는이때에 이것의숙청과 보도를마튼 보도연맹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개시하야 효과를내고잇스나 이것은 주로중등학생을 취체의 대상으로하는만큼 전문학생의그것을 등한시하얏든것이 잘못이엿든지요번에는 전문학생이중심이되여서 각백화점원, 간호부, 미용사, 카페여급등을 망라한도색유희의크럽을만드러노코 유흥비를 구하기위하야 절도단을 조직한사실이 발각되엿다 — 칠일본정서고등계에서는 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치과의학전문학교학생유원의태랑(柳原義太郞)(二一)(假名)외사오명을 인치하야 노규극비밀리에 취조를개시하는 한편 본정이정목 태양헌(太陽軒)카페여급지전시자(池田時子)(二○)를 별실에인치취조하고 잇섯는데 이런학생이 리─드가되여서 여급간호부 백화점원등의 여자들을 규합하야 도색유희의 비밀결사비슷한것을 조직하고 여기에 드는비용을 조달하기위하야 대규모의 절도단을 만드러서 각처에 침입하야 고가의서적을 절취한물건을 너온사실이 드러낫스므로 동서에서는 상대가학생이라 신중한태도로 취조를 계속하고잇는데 취조에따라서는 유한매덤 인천등다수의 연루자가 판명되리라하며 현재유치취조를밧는 학생은 육칠이에달한다

商業에失敗코 投身自殺

팔일오전구시경에 시내 마포정(麻浦町)사백십구번지압 한강연안에 조선집세기 신발하켜레와 유서두통이 노히여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직시 소관용산서에 신고하야왓스므로 유서의 내용을보즉 전남고흥군주암면에 본적을둔 어용하(三○)로써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자기사촌되는 시내금정(錦町)에사는 이성년(李聖年)과가치 잡화상을 경영하야 왓섯는데 원래 성년은 성질이 방탕하야 금전을낭비하므로 수차 충고하엿스나 듯지안흠으로 요새와서는 결국상점을 그만두게까지되여 상업에 실패한 것을 비관한끄테 본가와 사촌 이성년에게 유서를남기고 자살을 도모한것으로 판명되엿다

夏休中의學生風紀

仁川에保導主任會議열고團東協議

여름철 긴방학동안 선생의감독에서 떠나는 남녀학생들가운데는 산으로물로 부모의교호에 멀리떠나는사람이 만허 해마다 풍기문제에 말성이만허그것을 미리예방하기 위하야 경기도에서는 일층 단속하기로 되엿다

여름방학을 압두고 경성보도련맹에서는 긴급보도주임회의(緊急保導主任會議)를 모하 경인지방 남녀학생의 방학동안에 학생에관한 주의를 협의하기로 되엿다 이회의에이어 동련맹에서는 칠월십일부터 시작되는 소학교방학생의 보도방침도 여러가지로 협의하기위하야 경성에서 소학교보도주임회의도 열기로되엿다

인천보도련맹에서는 십구일 인천부청(仁川府廳)회의실에 인천중등학교 보도주임 회의를열고 절실한 단속에 관한것과 귀향학생에관한 주의를 협의하기로 되엿다

손버릇고약한傭人

체부정(體府町)오십칠번지 채완귀(蔡完龜)미곡상에 고용사리하고잇든 현태산(玄泰山)(一九)은 손버릇이 고약하야 지난사월이십사일에 쫏겨난뒤갈 곳조차업시된것을 내자정(內資町)사번지 식료품상박봉석(朴鳳錫)씨가불상이여겨 집에다두엇더니 하로지난 이십오일밤에 소금사오라고준돈 이원과 이십여원짜리 자전거를가지고 나간채 종적을감추어버려 이래종로서에서엄탐중 칠일밤에 한순려관(寒順旅館)에숨어잇는것을 체포하엿다

大同工專初代校長

早大吉川博士遂受諾

【平南支社發】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專)의 교장은 기보와가티 조대공학부(早大工學部)주임교수 공학박사 길천(吉川)씨의 허락을엇서 동박사로 결정되엿고 씨의 부임을기다려 망산파교수진의 결정을하기로되엿는데 주임교수도 공학박사를 수방으로 각기권위자를망라하기로되엿다

吸血鬼

시내한강통(漢江通)어번지의 사신통에사는 무직 이조호치(二條好治)(二六)는 칠일오후십일시경에 시내미생정(彌生町)유곽 김자선(金子善)방에등루하여 호유하든중에 창기가자긴 틈을타 을뒤저서 금시계한개 시가오십원짜리를 훔처가지고 회대도내지안코 뒷문으로 도망쳐서 자기집에 잠복하여잇는것을 팔일새벽시경에 용산서원의 손에체포되여 엄중취조를밧고잇다

自殺幇助、殺人

圖們稅關官吏의控訴公判

자살방조(幇助)냐 살인이냐하야 소화십이년유월 국경도시 도문(圖們)에 커다란 엽기적 화제를던저준 원만주국세관원리 교도국기(敎島國己)(二六)에 대한 살인피고사건은 일심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검사가 자살방조로인정하고 징역삼년을 구형하엿든바 재판장은 살인죄로단정하고 징역오년의판결을나렷다 이어서 피고의공소와 경성복심 이견(里見)검사의부대공소로 칠일 이사건의공판이 복심에서 시본(矢本)재판장주심으로 열렷섯는데 이번검사역시 원심구형과가티징역삼년구형을하야 매우 주목을끌고잇다 사건내용은 전기 교도국기가 소화십이년사월 도문에서 세관리로잇슬때에 그곳 『카페ー』 일조회관(日潮會館)의여급 추원정지(秋原靜枝)(二○)와 정을 통하고잇섯는데 그해유월초순 어떤날 밤에 교도가 그 『카페ー』로 술을먹으러가더니 정지는 소위 이동박(伊藤博)에게서온 전보를보이며 동경(東京)잇슬때 친히 지나든 이남자가 수일내로 이곳에올러인데 나는이남자와 결혼하게될지도모른다 고말하엿다 이말을 드른 교도는 질투끄테 그날밤 정지를 자기여관까지다리고가서 정사를강요하며 동녀에게 초산 『스토리키니ー네』 를먹이고 자기도먹으려고하엿스나 자기는죽지못하엿다 그리고 정지는 다음날 전기독약에 중독되여 죽고만것이라는데 이것이 살인이냐 자살방조가될것이냐 또는 이나자못흥미잇는문제가되여잇다

人夫爆死

맥신 화약을 안되는음

육을캐내다가 목숨을빼앗긴 가련하고도 무지한 노동자가잇다 칠일새벽세시쯤되여 양주군 회도면복현리(楊州郡檜道面卜峴里)경춘철도마석우리(磨石隅里)터널공사장에서 종업하고잇든 충북옥천군북면 리평리(沃川郡北面梨坪里)유한경(柳漢京)(二一)이 가 구멍한개파는값 이십전을 거저벌려고 남이파노흔 화약을처질는구멍에서 화약을 끄집어내려고하지음에 큰소리와함께 화약이 터저 그는즉사하고 부근에서 일하고잇든인부네명이중상을입엇다

建築物取締法規緩和

강재작물축조허가규측(鋼材作物築造許可規則)에 의하야 제한 ...

총독부에서는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畫令)의 일부를 개정하야 건축재료중 철재(鐵材)사용을 완화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인즉 종래 철근콩크리―트등을 사용하던건축물은전시된 철재(鐵材)를사용하던건축물은 ... 번에 실시된 강재공작(鋼鐵工作)...
물축조허가규측에 의하야 제한을 밧게되엇슴으로 이대용품으로 벽돌(煉瓦)을 사용하는규정을 현하시국에 비추어 방공방화(防空防火)에 일층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기위하야 그개정법령을 명구일부터 총독부령으로 발표실시하기로되엿다 그런데 그개정요령은 다음과갓다

一、警察部長에 對한 道知事의 職權委任範圍을改正 規則施行後의實情에鑑하야 委任範圍를 擴大한 그運用을各道의實情에應하야 施行細則으로委任範圍를區別하야 取締의適正을期한다

二、兩極에關하야는北朝鮮地方의實情에鑑하야冬期中破損되어効果가업게될憂慮가잇스므로 如斯한地方에서는 知事의裁量에依하야 緩和할事로한다

三、建築의基礎構造에關한規定을 加하야都市建築의安全性을確保케한다

四、木造建物의構造에對한規定을加하야 風力에對한災害防止를期한다

五、防火壁을一部改正하야煉瓦造로하드래도支障이업스므로 防火壁은 煉瓦造로하도록 制限을 緩和하야 그普及을期한다

六、都市防空防火의 見地로보아煉瓦造의構造法度에關한 規定을加하야 都市防火地區制定의强化를期한다

防空、防火壁에注眼

鐵筋代用煉瓦使用無妨

市街地計畫令의一部를改正 明九日부터發表實施

列車脫線現場에

荻原庶務課長急行

육일저녁에 전라선(金羅線)괴목역(槐木驛)과 구례구역(求禮口驛)사이의 황학천(黃鶴川)에서 진행중의렬차가 탈선전복되여십사명의사상자를 내엿스므로 철도국에서는 이중대사고의 발생원인을자세히 조사하야 피해자에게 상당한위자(慰藉)의 방법을 강구해야하겟스므로 적원(荻原)서무과장은 우선야간의 일로 품을가지고 칠일밤렬차에 경성을떠나 현장으로 출장하엿다 사고를 내게된 그기관차는 순천기관구(順天機關區)에서 대개 검사를 한뒤에 운전하게하엿슬터인데 아마 고장이잇는것을 발견하지못한탓이 아닌가 추측된다

署長의捕盜譚

경찰서장의포도담 — 육일밤에 휴시쯤되여 부내종로이정목공십 구번지압 야시에서 도라단이는 참도바하고잇는것을 지나가든조판조로서장이 발견하고 그중두명을체포하엿는데 다옥정(茶屋町)이 십팔번지 김인제(金仁濟)(二○)와 한강통(漢江通)구번지 안기성(安基成)(二○)의 두명이다

스포ー츠

今夏에來訪할 留學生蹴球 北朝鮮轉戰

동경유학생(東京留學生) 축구구락부(蹴球俱樂部)에서는 이번하기휴가(夏期休暇)에도 향토방문(鄕土訪問)을하기로되여 오는七월十二일에 동경을떠나 신석(新潟)에 이르러 선편으로 日本海를건너서 청진(淸津)에서 향토방문제일전(第一戰)을하고 회령(會寧)、성진(城津)、신북청(新北靑)、함흥(咸興)、영흥(永興)、원산(元山)、철원(鐵原)、경성등의순서로 전전(轉戰)할예정이라는데 청진과경성의 연선지방팀으로 교전(交戰)을 신청(申請)하면응하겠다하며 이번 二十五일까지 동경시신전구후악정동경조선인기독교청년회관내(東京市神田區猿樂町東京朝鮮人基督敎靑年會館內) 동구락부로신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동구락부는 종래에는 남조선을 경유하야 경성、평양등지에까지래방(來訪)한일이잇섯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코―스를 택하야 북조선(北朝鮮) 一대를 순방하게 되엿다 一행은 이미 동대(東大)와 외인팀(外人)等을 물리치고 상당한 강미(强味)를 보이고잇는데 현재 일본축구계(日本蹴球界)를 풍미(風靡)하고잇는 삼·E·B전법(三E·B戰法)과 W형포―메―슌을 습득(習得)한 一행의 멤버는 다음과갓다

明大野球來征

명치대학야구부(明治大學野球部)는 조선철도협회의 초빙을바더 七月一日午後四時半에 釜山公設球場에서 철도팀과 第一戰을 交한後 京城、平壤等地에轉戰하리라한다

部長 朴性天・監督 尹○○ 幹事 朴仁哲 主將 南○○ 幹事 崔東淳 金永相 李在善 選手 安俊化(法政) 鄭○○(明大) 文○○(立大) 張○○(法政) 金九河(中央) 元○○(明大) 李○○(明大) 太○○(明大) 金○○(日大) 洪○○(日大) 洪○○(明大) 文○○(日大) 車○○(中大) 元○○(明大) 金止亮(明大) 秋○○(中大) 金○○(早大)

中等武道大會

京城帝大豫科主催의 第十三回 全朝鮮中等學校 武道大會는 來十八、十九日兩日間 大陸道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柔道、劍道、弓道等에 參加할學校는 總數二十五校에 達하리라한다

世界蹴球大會開幕

【巴里五日發同盟】 第三回世界蹴球選手權大會第一日은 四日一回戰을 擧行하바 其成績은 다음과갓다

佛 國3……1白耳義
伊太利2……1諾威
쿠 바3……3和蘭
루마니아3……3쿠 바
뿌 라 질6……5波蘭
匈 牙 利6……0蘭領印度

運動界集會・人事

▲朝鮮蹴球協會에서는 全延京遂別蹴球戰에對하야協議코저今八日午後八時에本町明治製菓樓上에關係者를招請할터이라한다

色鉛筆

살기위해서는"탈바아지"가필요하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의효용가치(効用價値)를극단(?)으로 해석한자들 가운데 가혀사가 생기고 가혀병이생기고, 가신사가생기는것으로▲이부류의 인간들은 차라리 구구한 일생이나마 살어보겟다는 생의애착심에서나온, 가중하나마 그대로동정을끄는 행위이라고 간단히 해석해 버릴수도잇겟지만 ▲소위 교양이잇는 자들가운데는 의식적으로 또는고의적으로 신분에혹리고 환경이 용납안하는"탈바아지"를 일부러쓰려는 축들이 흔해저서▲"사업가"입네"운동가"입네하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것을보면 정말눈꼴이 시여 못보겟다▲새여필자, 이네들에게 진상할 말한마듸가잇다 "구구로죽다 구구로죽는것이그네들의 팔자가 아닌가"

라듸오

第一放送 ▲午後六時二○分 幼年童話 李順伊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講演 許逸 ▲八時二○分 라디오常識(二) 沈友燮 ▲八時三○分 雜歌 任彩鳳 細笛 姜鋼珠 笙簧 李忠善 ▲八時四五分 時調와解說 李秉岐 唱玄石年 ▲九時一○分 피아노獨奏 카슈린・코ー만 ▲一○時一○分

第二放送 ▲初等國語講座(一七)宋今旋 ▲六時二五分 講演(京城) ▲七時三○分(東)歌謠 ▲七時四○分(東)講演 ▲八時(東) 吹奏樂 ▲八時三○分(秋) 俚謠 ▲八時五○分(大)浪花節

樂壇의새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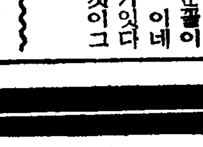
李春子孃洋琴獨奏會

硏鑽의길! 渡米압두고告別演奏

時日場所 六月十七日 午後八時 於 公會堂

入場料 普通席 七十錢 指定席 一圓半

主催 梨專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



膝にバンヂョー

懷しのミシシッピ河面に流れわたる我がメロデー!
アレグロの大伴奏!
膝にバンジョー
河の流れるところ
何か漂よつてゐるよ
セントルイズ・ブルーズ

奏でられるバンヂョーの絃が結ぶ若人の愛!!

二十世紀フオックス特作
ジョンクロムウエル 監督
バーバラ・スタンウイグ
ジョエル・マクリー 奏

20th CENTURY FOX

義理に生き悲しみに泣きながら哀れ純情の芸妓 悲恋紅涙の物語に一掬の涙をたまへかし!

花柳小菊の花柳情話
春雨郵便
花柳小菊 深水四郎 主演
日活多摩川特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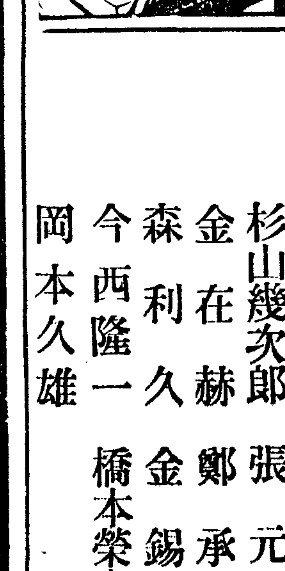
日活京都の 木曽路の旅笠
沢村国太郎 河部五郎 主演

午前中割引致シマス

9日より

黄金座

每食後에씹어서…… 얼마나快適한가를 시험해보시요



リグレ

JS-9

世傳秘藥 늑막염, 연주창, 입종, 마치불구, 대하증으로病院서못고치던 困難症임이아니다 地方에게신분은 寄附로病狀을通知하시오 京城府本町一丁目 大藥房 (?)

諸鳥獸高價買入 山口屋小動物園 京城本町

남녀 림질 쇠약 淋疾、梅毒、不足、腎虛 ... 京城府 ... 中央藥院

今秋特典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無代로配付하며且 兩科를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各其學年末에相當한講義錄一冊을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新入會員大募集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二十冊 六十錢 一年三個月卒業(速修)
普通科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個年卒業(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振替京城八八九五番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精力減退의人!! 早老衰弱의人!!

에게蔘茸トニク는唯一한蘇活劑로서定評이잇슴니다

本劑는聯合臺灣으로至補하며 精力을增强시키며 精力減退、神經衰弱、病後衰弱、肺結核、貧血症、早老等으로悲觀하는人에게顯著한强精效果가有한것은實驗에依하야明白함니다

(全國各地有名藥局及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함)

定價 五圓 二圓八十錢

說明書並見本無代進呈

製造發賣元 京城府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賣捌代理店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大阪 大木合名會社 高橋盛大堂

當選謝禮

惠山邑會議員改選之際에 當選의榮譽를得함은 오직 有權者及有志諸氏의同情이가함니다 이에삼가謝禮하나이다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八日

惠山邑會議員

杉山幾次郎 張元鳳
金在赫 鄭承鳳
森利久 金錫禹
今西隆一 橋本榮太郎
岡本久雄

大増頁！五大計画發表!! 七月特大號

キング

毎號大評判！驚嘆の大賣行!!

如何にして長期戦を乗切るか 陸軍大將 **林銑十郎**

（今や事變は長期戦に入って〔illegible〕も國家は〔illegible〕に〔illegible〕するを許さない。この秋！〔illegible〕の現状と今後に對し、〔illegible〕の至誠を語って全國民に〔illegible〕へた〔illegible〕世の大〔illegible〕。見よ！）

畫報

- ●支那事變畫報
- ●名士と仕事
- ●内外カメラ特報
- ●時局面白繪解き
- ●南氷洋捕鯨グラフ

随感随想

- ▲八十翁漫談……〔illegible〕
- ▲禮儀と手紙……和田〔illegible〕
- ▲〔illegible〕の花……吉江〔illegible〕
- ▲〔illegible〕……山下〔illegible〕
- ▲玉章と飛弗……〔illegible〕文夫
- ▲寫生は藝術でない……橋本〔illegible〕
- ▲勉強も中位に……村上〔illegible〕
- ▲藝の深さに泣く……花井〔illegible〕子
- ▲現在の仕事を……宮川〔illegible〕子
- ▲世の中は公平……上野〔illegible〕一
- ▲生活様式の改善……石本〔illegible〕

戰史に輝く 徐州大會戰詳記

（世界各國の軍事専門家を驚嘆せしめた徐州大會戰を、わが作戰から、準備時代、地形、〔illegible〕の進撃状態、徐州の混亂振り等に渉って、詳しく述べた全國民の必讀版！）同盟通信社 川崎正〔illegible〕

北支五省の産業と資源

企畫院調査官 池田純久

（世界の寶庫といはれる北支にはどんな資源があるか、日本は如何に利用すべきか）

特別五大計画

第一計画 人間學出世學 面白繪ばなし

これだ〱と膝を打つ話揃ひ！〔illegible〕世成功の近道、處世修養のコツを示した活きた虎の巻、萬人必讀！

- ●行屆いた親切……〔illegible〕
- ●泊り心地よき旅館……〔illegible〕
- ●たつた一年の信用……安田〔illegible〕
- ●積極的平凡人……〔illegible〕
- ●〔illegible〕しく幸運に……黒住〔illegible〕
- ●土工の女房……長谷川〔illegible〕
- ●客の〔illegible〕タクを拾ふ……木村〔illegible〕
- ●運轉手に學ぶ……八波〔illegible〕
- ●理想の婦人は母……永谷〔illegible〕
- ●大臣の古〔illegible〕……山本〔illegible〕
- ●〔illegible〕の話……小林〔illegible〕
- ●〔illegible〕……〔illegible〕
- ●お〔illegible〕さんとお嫁さん……伊藤〔illegible〕
- ●商人の〔illegible〕小心……光永〔illegible〕
- ●父に〔illegible〕られた事……川〔illegible〕
- ●〔illegible〕を〔illegible〕んだイソップ……三上〔illegible〕
- ●古河市兵衛の手紙……谷水〔illegible〕
- ●〔illegible〕に忠實な老店員……〔illegible〕
- ●〔illegible〕……麻生〔illegible〕

▲（武士道の話）大義武士道　菊池寛

自我の至妙！將士の忠烈!!

▲世界の神秘、日本刀の話　東京帝大 岩崎航介

第二計画 皇軍將士に寄す

全篇これ大感動!! 〔illegible〕に列せる諸名家が、感謝と慰問と激勵と、一億同胞と共に國民的眞情を吐露せる熱涙感激の大文字！

若槻禮次郎　本野久子　土井晩翠　時保〔illegible〕　濵川秀雄　友納友次郎　有馬良橘　大島〔illegible〕　松田源一　高橋清吾　水野錬太郎　川島〔illegible〕　金子〔illegible〕　小久保喜七　〔illegible〕　西原〔illegible〕　守屋〔illegible〕　安岡正篤　三土忠造　〔illegible〕　原〔illegible〕　〔illegible〕月邦　〔illegible〕　吉植庄亮　〔illegible〕　川島〔illegible〕一郎　石井〔illegible〕　〔illegible〕　川村竹治　小室〔illegible〕　坂本〔illegible〕　〔illegible〕　石坂〔illegible〕　〔illegible〕（順不同）

第三計画 名士名流 特選笑話御披露

これは又世にも奇抜な、落語を地でゆく可笑しくてたまらぬ天下一品の珍笑話

- ●一難去つて又一難……中川〔illegible〕
- ●今おしり……市河〔illegible〕子
- ●叱られた代表……曾我廼家五郎
- ●馬面先生……本多〔illegible〕
- ●病原體發見……高野六郎
- ●未來を求める畫家……下位〔illegible〕
- ●辯護違ひ……〔illegible〕
- ●吹流し……〔illegible〕
- ●洪水の謝禮……〔illegible〕
- ●のつぽとキリン……平山〔illegible〕
- ●乗車券拜見……大宅〔illegible〕
- ●〔illegible〕事取つておきの笑話御披露〔illegible〕

第四計画 評判落語競演會

ワハヽヽヽ!! とても〱面白い、何も彼も忘れて大笑ひ!! どうぞ、お笑ひ下さい

- ●庭番……林家正蔵
- ●ぬけうら……春風亭柳條
- ●相撲放送……桂右女助
- ●モデル……昔々亭桃太郎
- ●解決屋……柳家金語樓
- ●とんかつ……柳家權太樓
- ●押賣り……三遊亭金馬

第五計画 讀切小說十大傑作集

大家新人花形の力作くらべ！戀あり、義あり、勇あり、怪奇あり、涙あり、笑あり―どの一篇もグッと急所へくる傑作揃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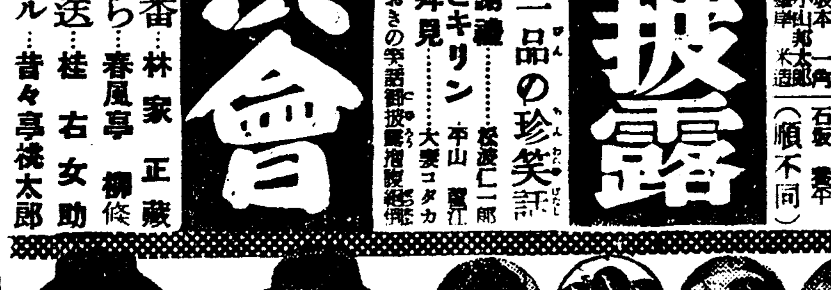
- ①戯曲時代小說 元祿忠臣藏　眞山青果
- ②現代小說 危險信號　細田民樹
- ③股旅小說 やくざ如來　久我荘多郎
- ④時代小說 陣中祝言　野村胡堂
- ⑤軍國小說 軍國の父　中村溪
- ⑥武勇小說 血染の極意　雪竹半四郎
- ⑦探偵小說 羅馬の指環　加納十一
- ⑧武勇小說 ぼやけ忍術　目黒麥男
- ⑨滑稽小說 戀愛正午版　伊馬鵜平
- ⑩山窩小說 伊佐沼小僧　三角寛

大評判の傑作小說

- 時代小說 浮名紅梅（川口松太郎）
- 武勇講談 斑鳩平次（神田越山）
- 股旅小說 駒下駄道中（原巖）
- 現代小說 青春を賭けて（横山美智子）
- 時代小說 魔粧佛身　吉川英治
- 現代小說 薔薇競技　細田民樹

愛憎の書

菊池寛先生力作



日本の妻（竹田敏彦）

あゝ軍國の妻の健氣さよ！新婚間もなく出征して上海戰線の華と散つた夫の遺を、その遺兒と共に守る可憐の妻明子の生きてゆく道！

●大入滿員 漫画大レヴュー館
●何でもムれ！愉快の王國 キング大娯樂園

▲王錦、双葉山はどの位收るか
話の種
▲中等學校長の體驗から得た處世訓　人世訓

新掲載 探偵小說 双假面　横溝正史

尊敬すべき一農家の話

人氣花形身上ばなし

- （作家）三角寛
- （浪曲家）天中軒雲月

- ▲時事問題早わかり……經濟學博士 太田正孝
- ▲名僧の言行……高田〔illegible〕
- ▲常識大學……〔illegible〕
- ▲キング笑話選
- ▲面白繪統計

- 昭和名優 市村羽左衛門　細川辰彦
- 英傑物語 島に流された隆盛　武者小路實篤

明治天皇御製

（特別挾込小折本附録）

御歌所寄人・千葉胤明 謹抄

百三十首謹撰。御仁慈、御聖徳を偲び奉りて、拜誦するだに只々感涙。國民朝夕座右の寶典。

定價七十錢・大册の頁二十二百七々堂　送料六錢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發行　振替東京三九〇

家庭

애들에게겁나는 여름의소화불량

과식과상한음식에도탈나지만 잠을잘못자도걸립니다

여름엔 아히들이 제일탈이잘 납니다。그중에도 배탈이 몹씨 나는것은 여러분도 잘아시는바 입니다。

그래서 악성의 소화불량 리질 대장가다루 급성위장가다루 등이 만케됩니다。아히들이 여름에 그뜨거운 폭양아래서 작난에 정신이 업다가 목이몹씨 마르던지 배가곱흐면집에 뛰여와서는 함부로 먹는데 대개는 과식하게됩니다。

그런데 본래 여름철엔 위장이 퍽약해져서 일을잘못하는우에 더위에 땀을빼면 몸이자연히 활발하지못합니다。그런후에 음식을 주의하지안흐면 수면부족、배탈들이 생겨서 아주심한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채소와과실

채소는 할수잇는대로 생생한것으로 먹어야합니다。우리네가정에선 시금치나 배추우거지를 데처서 물에다 담거두고 상해서 다푸러진것도 버리기아깝다고 먹습니다。

상한것을 버리기아깝다고 먹는것은 알뜰한 일이나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그리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탈이나면 약갑 그면배를들고 사람은 죽도록 욕을보는것이 안입니까。

그리고 오래된 채소는 섬분도 조흔것은 다빠지고 속에섬유만 남어잇는것입니다。

아히들게 김치가튼것은 재미적고 콩도 소화가안됩니다。제일조흔것은 감자、고구마、호박、오이、가지등인데 넘우먹이지말고 적당히 줄것입니다。

생으로 그냥먹을것으로는 토마토가영양갑이 제일인데 이것도 껍데기를 벗기고 아조어린애들은 속에 씨를빽아서 주시면 조흡니다。

과실은 직접리질병과 관계가 만흐며 특히 섬유가만흔 복숭아가튼것은 소화가 잘되지안습니다。

과실을 주랴거든 아조잘익고도 상하지안흔것으로 조금씩 입니다。섬유가만코 상하기쉬운 빠나나는 세상에살린 애기가아니고는 주지안는것이 조흡니다。

간식식히는데주의

간식은 불가불 조금식 시켜야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공연히 어머니를 졸라서 할수업시 아무거나 한푼 두푼어치를 사서 울꼭이나 막우려고 먹이는것보다 하로세끼 밥때 그사이에 넘우배곱흐지안케하기 위하야 먹이는것으로 생각하서야합니다 왜냐하면 끼니때 배가곱흐다가 밥을 한꺼번에 넘우먹을염려가잇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간식은 영양가치를 생각해서 먹이는 어머니가 조선어머니 가운데 면분이나되는지 알수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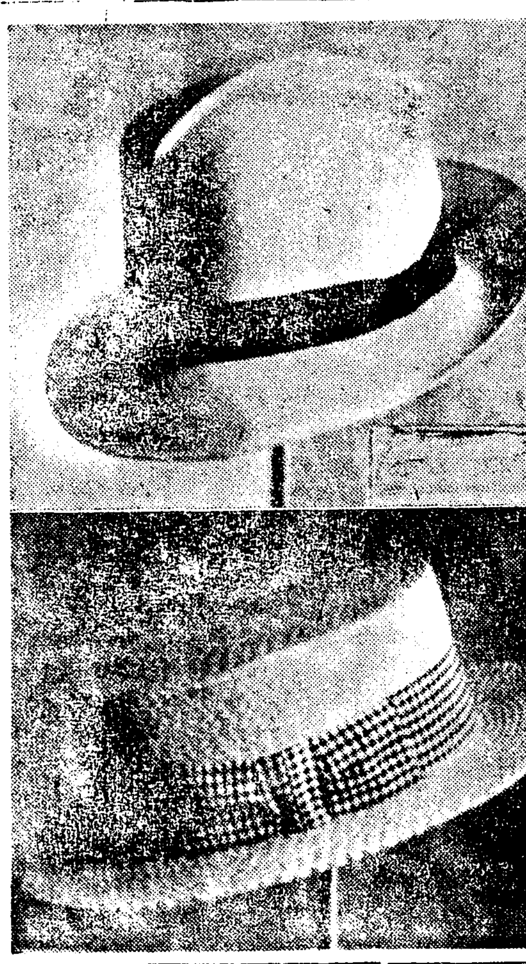
그저 보채쌋니까 어름이고곳된과자고간에 한푼둔어치 사서 쥐여주는데 이러케하면 아히의게 이익은커녕 도리혀 크게해가되는것을 아서야합니다。

간식은 오후세시쯤해서 한번 주는것이 조코 과자가튼것도조곰 주더라도 먹어서 영양가치가잇슬것을 생각해서 주서야합니다。그리고 밤에 먹이는것은 ……니다。

단연빗나는 파나마

삼원짜리부터 삼백원까지

맥고는왁살스런게유행



벌서 거리엔 맥고모、파나마가 헤여저서 첫여름의 눈을시원하게합니다。

그런데 금년여름 모자의 류행은 맥고모의모양이 나까오리나 파나마의 모양을 약간 마른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곱게짠것보다 굵고 거친것이 환영되고 리본도 구멍이 숭숭뚤린것이 나왓습니다。

뿐만아니라 모자의챙은 그냥 매끈한게아니고 우툴두툴하게짠것이며 리본은 아주검은빗보다 줄무늬혼것이 만히 씨운답니다

갑은 작년과별반 차이가업으나 약오부가량 올러기때문에 일원으로부터 사원전후면 맥고모갑는 됩니다。파나마는 채이 좀 넓어진것뿐으로 모양은 작년과별로달라지지 안헛습니다。

박래품은 수입금지때문에 갑시 이할이 올럿기때문에 제일싼것이 십이삼원으로부터 삼백원정도까지 잇습니다。보통은 오륙십원으로부터 칠팔십원이면 그저 웬만합니다。

국산품 파나마는 그짜는 품만외국에서 가저다가 다시 손질해서만드는것인데 전에는 외국것보다 다소 못한점이 잇다고햇지만 지금은 대단히 진보가되여서외국품과 별로 차이가업습니다。이 국산품은 팔구원에서부터 삼십원 까지이면 극상품으로 살수잇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나마라고 하는것은 남양에서 나는종려사귀에 물들드려 만든 것인데 이런것은 오륙원으로부터 십원가량이면 삽니다。

이외에 조히파나마 라는게잇는데 이것은 조히로파나마처럼 만든것인데 세탁할수가업고 질기지 못한것이 흠이며 갑은 이삼원이면됩니다。

이상과가티 파나마라고해도 그종류와 갑시 여러가지입니다。

대단히 해롭고 장맛업서서 에 어른이 만케고생하기쉽습니다。

위험한음식

해집바다에서 파는 아이스쿠리、아니스케키、만주팡—이런것은 아모래도 불결하기만할기쉬운으로 위험합니다。더구나 이러한상한 재료를 써서만들기 쉬움으로 주의하서야합니다

아침점심요기로 푸렌취토-스트

늘상 양식을 잘잣는분이나 그러치안터라도 자조 양식을하는분들은 언제나 팡은 토-스트를먹게되면 역시 실증이나는때가잇습니다。

그런할때는 여기에 소개하는 푸렌취토-스트를 해잡서보십시요 식욕이 칙신 늘겟니다。

(1) 팡은 삼분두게로 썰어서 가장자리에 딱딱한부분은 떼내버립니다。

(2) 계란을 풀어 이썰어노혼팡에 바릅니다。

(3) 지짐질 냄비에 빠터를 조곰너코 거기에 팡을 너허서 량면을 골고로 지저낸다음 다시 사탕가루를 발러먹습니다。

우리차지

소를잡아 맛잇게먹다자 목구녁에 뼈가걸린 호랭이 가물을 똑똑흘리며

『애 까치야 내목구녕에걸린 가시를 좀빼다우 그럼 오담에 네은혜를 톡톡이 가푸마』

까치는 가엽서서 호랭이목구녕으로 드러가 주둥이로 목에 걸린뼈를 빼내주엇습니다。

그뒤에 까치가 호랭이를 맛낫습니다

『애 호랑아 배가고프니 너먹는것 좀꼼만 떼어주렴』

『애듯기실타 전에네가 내목구녕에 드러왓슬때 한입에 콱깨무려 먹지못한게 후회다』

(글쓴사람 인도고)

長篇小說 愚氓【61】

朴泰遠 作 洪祐伯 畵

長壽山行(三)

『어제 퍽 기다렷슬걸?』

학수가 현관으로 나가자 최경영은 그공직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반가웁게 실실웃어준다。『노-타이샤쓰』에 골푸바지를 입고、굵은 사구라 몽둥이를 든 모양은 매우경쾌하여 보엿스나、양복이 좀빼진 듯 시푸것이、섯달전 서울와슬때 비겨 혈색이 조치 못하다。

『난、무슨 일이 생기섯나 햇죠。』

그의 손을 잡으면서、학수는 최에게서 좀 떠러진곳에가 외면을하고 서잇는 처녀를 바라보앗다。열、일곱、그나마 흘깃 보앗슬뿐이니 지금당장 다른 하는수 업서도、조쪽-가 『뻡뻡상』이라 하던 말이 거짓은 아니얏섯다。

(이여자가 최의 누이로구나…

……)

학수는 그러한것을 직각하며 저도 모르게 약간 얼골을 붉히고、다시 최에게 향하여 말하엿다。

『어서 올러 오시죠。』

『그러케 오래도 안오더니만 그래도 그ㅣ에 오기는 와구면 오긴 왓서。』

학수를 이러케 맛나보는것이 최건영에게는 그러케도 신통한일이엿던 모양이다。그대로 그곳에가 서서 바루 감개무량한듯이 한번 중얼거린다음에 그제야 생각난듯이、그저 외면을 하고 섯는 처녀편을 도라보고

『어서 올라가자。』

그리고 학수의 뒤를따라 그의 방으로 가며 또한번、

『어제 퍽 기다렷지?』

하고 미안쩍게 말하엿다。

『참、무슨 몸일이란도 잇스신게 아녜요?』

『몸일은 무슨 몸일……』

최는 고개를 한번 모으로 흔들고、

『오늘 날이 활짝 들엇는데 바루 장수산으로 갑시다。』

그리고 다음은 호잣말가티、

『봄철、가을철이 조타곤 하지만、요새 첫여름경치도 볼만할께야。』

한가한 말을 한마디 하고、아마 간밤에 잠이란도 덜 잣는지、늘어지게 하폄을 한번하엿다。

그러나 최건영은、지금 누이를 데리고 학수와 더부러 장수산 구경을 나선수잇게 한가한 처지가 아니엿다。작년 가을부터 병석에 신음하는 최수부가 요사이는 그 목숨이 참말 경각에 달려잇다。최건영은 누이 옹천이와 함께、그의 조부 겨테、모시고 잇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최건영에게는 살만큼 다살고 도라가게된 조부의 일보다도、이제 한창 피여나는 사랑하는 누이 옹천이를 위하여 그 배필을 정하여 주는사무가 훨씬 급하고 또 긴하엿다。나이로만 본다면 이제 열일곱이나、무어 지금부터 서둘으지 안어도 조흘지 모른다。그러나 옹천이의 경우는 좀달부러이가 한다。

말이 잇기는 벌써 작년 섯달부터엿다。

『아、인제 열여섯 먹은 아이를?』

하고 반대도 하여보앗스나、집안에서 그러케 갑자기 옹천이의 혼인문제를 끄내게 된 사정은 그로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수 잇섯다。하마디로 말하자면、허울은 조와도 속이 곪은 집안 형편에、하로라도 일찌기 어디 남의곳으로 옹천이를 주어버리자는것이다。이제정말 집안이 결단이 나고 보면 그나마 마땅한 혼처를 구하기가 힘들게 아니겟느냐?

최건영은 혼자 속으로 막연하게 김학수를 생각하고 잇섯던것이나 그가 아모런 결심도 채 하지 못하고 잇슬때 아버지가 주장을 하고 잇는 혼담은 의외로 진전이 되여간 모양이다。집안일의 다른경우나 한가지로 옹천이 조차에 대하여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모런 자세한 말이 업섯스나 알고보니 서울 어느 또한이나잇다는 사람에게 후처로 들여보낼 생각인 모양이다。후처도후처려니와 신랑의 나이가 마흔둘이라던가 셋이라던가……최건영은 그 때 업시 흥분이 되여 그 혼담에 절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위선 학수와 누이 옹천이의사이를 접근시켜 보려고 결심하엿던것이다。어제 이곳으로부터 학수의 전화를 바덧슬때 그는 아주 학수를 집으로 불러다가 일이 넘우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의 의사를 알어보고 그즉시 아버지에게 담판을 하여볼까 하고도 생각하엿섯다。그래 그렇보고 곳 와달라고 한번은 말도 하엿스나、그즉시、적어도 인생의 중대사를 그러케 경솔하게 처리하는것의 온당치 안홈을 깨닷고、그보다는 옹천이를 데리고 나와、위선 학수와 서로 알기회를 지어주리라 마음먹엇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누이를 데리고 장수산으로 놀러갓다 온다는 말에 아버지는 물론 반대엿다。그러나、최는 어조할 그와 싸우고、아버지와 오빠 틈에 끼여 좀은 가슴만 태우고 잇는 옹천이를 울려가면서도 기어코 집을나서 온천으로 달려온것이다。

家庭医

最近注目되고잇는 結核과血液과의關係

◇病竈를集結해서、菌을壞滅시키는白血球의活動◇

結核에直効가잇는藥은 업는가——라고 하는것은 一時는 結核을앓는이면 누구나 療法은업는가 願하는바로서 醫術經過가 조곰이라도나뿌면 더욱더이러한생각이 深刻해집니다

그러면現代의醫學은 이에對하야 어떠한解決을 주고잇는가하면 結核病의原因인結核菌은 他의病細菌과달라 胞子菌이라는强固한

蠟樣皮膜에싸저

잇스므로 이것을殺滅해서 直接으로 菌을 殺滅시키기는 藥劑의 힘으로는 거이 不能하다고 하고잇습니다

그러나 結核菌은 血液中의白血球에는 比較的弱한 菌이라는 點에서 白血球를 增殖시켜서喰菌作用을 旺盛케하는것과 諸器官의 組織細胞의 機能을 노펴서 全身에 浸潤한 結核菌의毒素를 解素하는것이 가장 自然에 適合한 有効한 結核療養의 길이라고할수잇게됩니다

이白血球가 如何히 結核病竈에 作用하는냐하는데 對해서는 여러가지로 專門醫家의間에 研究해왓습니다마는最近長崎醫大의 竹内博士가 詳細한 研究를 發表햇습니다 그에依하면

結核病竈에는特히

多數의 白血球가 集結되고잇는것으로서 이것을 白血球性病竈가 적어진듯한 狀態의때(例를들면 肺膜)는 動物은結核菌에對해서 甚히 抵抗力이 弱하고 또結核의 勢力이 强할수록 白血球의 集結이 만타는것을 認定하게되엿습니다

따라서 白血球의 集結이 만타는것은 그만치 結核菌에 對해서 抵抗力이 增大되어잇는것으로서

如斯히 白血球는 結核菌에集結해서 이것을 喰하는것으로서 이作用은 衰弱한 組織細胞를 更生시키는 賦活作用과함께結核에 對한 抵抗力을 形成하는것으로서 現在結核治療上의 열쇠라고 할수잇습니다

이러한 意味로 推奬되고잇는것은 新生物 製劑『錠劑わかもと』의 服用에 依한 白血球의 增殖과 衰弱細胞의 賦活에依하야 結核病의 根源을 꺽그려는 治療法입니다

『錠劑わかもと』가 如何히 白血球를 增殖시키는가는 動物試驗上으로도 明確히된바로서 일직이 京都帝大의 微生物教室에서 家兎에 樹附錯의『わかもと』(錠劑わかもと의主成分)을 주고그 血液像을 檢査한結果 어느거나

白血球가顯著히增加

해잇고 그중에는 服用前一五・二엿던것이服用五日後에는 七二・二 即 四倍나되엿섯다는 報告가잇습니다

또『錠劑わかもと』中의 구리고ー겐은 結核菌의 毒을解消하는 作用을 도읍고 또十數種에亘한活性酵素와 호르몬・비타민等의 多種多樣의 榮養素는全身의 衰弱細胞에 賦活해서新陳代謝를活潑케하고 消化와食慾을旺盛케해서 榮養을向上시키는故로 白血球의 增殖作用과 아울러各方面으로抗病力이 노파지고 結核의 治癒가 自然促進되는것입니다

兒童의結核은 大概潛伏性입니다

★이러한애키들에게注意

結核으로死亡한사람의 經路를보면 二三歲쯤부터 …의幼小兒期에올마진 것이 約八〇%이라고합니다 그리고 그感染率은 生後六個月로부터 百人中二人으로부터十八、一個年以內의 것이로서 百人中三人으로부터十五六人이나 感染되엿다는것이며이 것을볼지라도 얼마나結核이抵抗力이弱한小兒를 질겨 侵害하는가를알수잇습니다。

發病

幼小兒의結核은 大人과달라서 直接으로肺를侵害치안코 菌은먼저가슴의中心에잇는肺門部의氣管支淋巴腺에퍼드러서 여기오래동안潛伏하고 體力이衰弱할때나 感氣와消化不良、痲疹等의 病에依하야 抵抗力이衰弱한때에 活動을開始해서 肺와肋膜等에 번지고 或은腦를侵害합니다

그러므로 이肺門淋巴腺에 菌이潛伏해잇는동안 退治하지안흐면안되지만은 이潛伏性結核의徵候로서는

◇身體가여위고 榮養이나빠며顔色은蒼白해집니다

◇疲勞키쉬웁고 元氣가업스며 食慾이減합니다

◇盜汗을흘리고 저녁때에微熱이잇고 감긔키쉽습니다

右는 極히初期의徵候로서 이時期에

適當

한加療를하면 速히 낫지마는 一般衰弱病者와 結核患者로부터 實用되고잇는『錠劑わかもと』는 前에도말한바와가티 身體諸器官의衰弱細胞에 活力을주어서 抵抗을强케하는 生物製劑인故로 以上과如한 徵候가잇는 弱한兒童에게 이것을먹이면 胃腸의活動이健全케되야、榮養이조하지고 食慾이增進해서 血色도조하집니다

그리고이藥에는 비타민B와리진히스치진等의 發育促進素도含有해잇는故로 이것을服用하고잇스면 結核菌에도 胃害되지안는튼튼한體質을保全하야 發育도促進합니다

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의 二種이 1日分겨우五・六錢(小兒에는三、三錢)의 廉價로發賣되고잇는데 近來그聲價를 利用해서 効果疑問의 類似品을 勸奬하는藥店도 잇는故로 注意해주십시요

再度의肺炎가다루 —를保養해서—

(山口縣柳井町) 內村精三

나는 昨年八月中旬頃 조곰無理를해서일을한까닭인지몸이느른하고 食慾이不進하므로 內科의博士診斷을바닷든바意外에도 肺尖가다루라고해서크게놀랏습니다

그때우연이 以前에食慾增進에『錠劑わかもと』를服用해서 대단히조흔 結果를본잇는것을생각하고 當町藥店에서 買入服用햇습니다 그런대服用하는동안에빠할일로는 食慾이차나고 三十八度余잇든熱이 平熱이되고 눈에 보이게 몸이살찌게되엿습니다 그런든것이이에 安心해서無理햇든까닭인지 再次 病臥케되엿습니다 이번으로저음부터『錠劑わかもと』를信賴해서九個月以內에는 全快해보일 自身으로 服用을햇스나 今番은 再發한까닭인지 期待한만치 速하지못하고 드듸어九個月餘를 病床에서 지내지안으면안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그後差效잇서서 約一個月保養햇든바 마음내元氣가잇게되고 本月中旬頃부터 出勤하게되엿습니다 지금은 那異常업스므로 아모로 念慮업습니다

カブトのカッちゃ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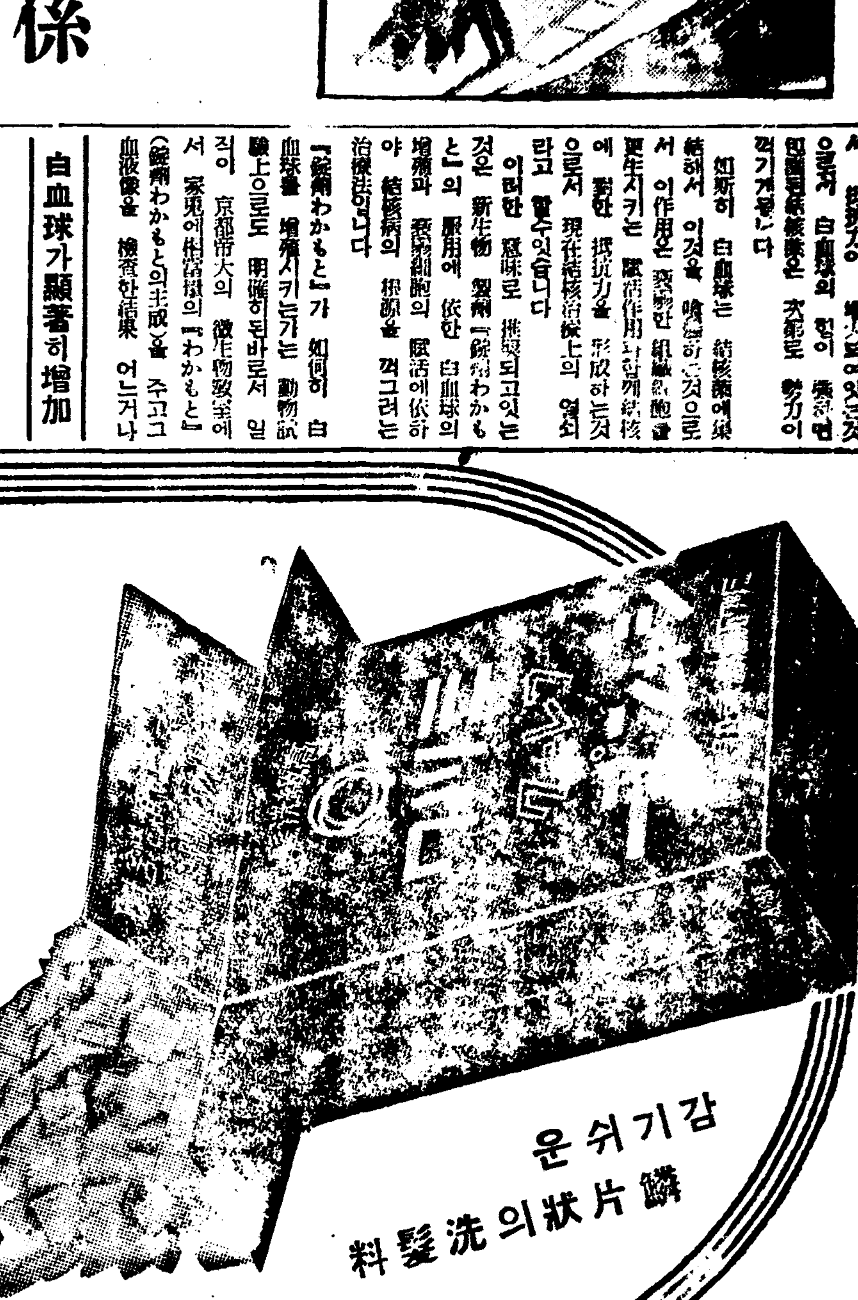
中島菊夫

洗髮料를選擇한는데!

때가 잘빠지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無理가아닐는지모르나、그것만으로唯一한標準을삼는것은잘못입니다、優秀한洗髮料는、때가잘빠지는外에毛髮을傷하지안는엘리케에트한品質이 아니면 안됩니다。

★ 洗濯曹達가튼粗製品(市場에잇는商品의大部分)을使用하면洗髮後가꺼슬꺼슬해지고、赤毛切毛等의탈을내고맙니다。

★ 本品은爽快한洗髮氣分洗髮後의착처진潤澤이잇게되어서머리털의自然美를助長합니다、머리털을사랑하는분에게업지못할高級品입니다。



ミツワ フレーク(삼) シャンプー(푸)

당신의毛髮의自然美를完全히保護하는——

洗濯曹達를包含치안흔最高級洗髮料

감기쉬운 鱗片狀의洗髮料

◎ミツワ石鹸本舖 東京・日本橋兩國 丸見屋商店

知識階級論【六】

現世에對한理解와愛着 — 知識과肉體와生의問題

白鐵

그러나 今日의知識人이 現實에對하야 伸縮性을가지고 兩面에處하는 態度는 어떤때는 現實에追從하고 어떤때는 知性에依하다는 成從或去의 【臨】時擬寫하는 것이아니다 現世道

問題는 現狀維持가아니라 그現狀維持가 同時에 未來에對한明示요 例의 慾望하는 世代에對하야 礎石이되는데서 後代文明의 조그만起源을 이時代의知識人의 態度에찾자는것이다。未來에對하야 積極的인 思想을 設定하고 그思想을設定에만 그치게아니키위하야 現世에對한 肯定的契機를차질때에 知識人은知性과現世的인것을 一體에統一하야 伸縮性있는 立場을 定하는 것이다。여기서 우리들은 今日의 知識人이 取하는 그伸縮性있는 立場의 現世的意義를理解한다。

그러나 이立場問題에 있서現世的意義를 理解한다는것은 이時代에 處하야 知識人이 어떤 積極的態度를 取해야한다는必要를 强調한데不過한것이요 그立場自體의意義는 그대로 漠然하다。

【今】日에있서 現實的 一時統一하는作用을 擔하는 能的으로 大體 그作用이 어떠케 實現되는지 따라서 그立場이어떤內容인가는 明白히 말할것이잇슴에 이때에 잇서우리들의 위선 생각할것은 그立場이 다만 兩面的인 要素의 本能的인 情熱에 屬하는 態度만도 아닌것은分明하다 結局 그두가지를 一體의 內에攝取하고 一體面에統一하는 어떤것을여기에서 찾는데잇다。

그러케 생각할때에 나는 여기에 知識人이 積極的인態度로서 知性과 現實의兩面을 統一하는 場所를 生의問題에찾고저 한다。知識人이 調和的인것을 追求하고 現世에 肯定的인것을 求하야 하나의 積極的인것을 차즈되 知識만이 解決하고

【肉】體的인것 亦是不可能한것을 이生의問題에서 보고자하는것이다 生은 知識도아니고 肉體도 아니고代身에 그두가지分散을 統一하는것으로 意味하는것이다。

그意味에서 어듸까지나 知識과 肉體를 統一하는 生의立場은 思惟가 肉體를 支配하는것도아니오 肉體가 思惟를 支配하는것도 아니오 生이 知識과 肉體를 統一하야 하나의 調和를求하는 것이다。어떤은 今日의 人間이 知識或은 本能的인것에서는 偏頗된 畸形的인 生에 對하야 完全한 調和的인 生을 求하는것이요 知識人의 立場으로서는 生生하게 知性을 追求하는것이 同時에 現實을 合理的으로 바더드리는 積極的인 태도를 意味하는것이다。今日은 그와가티 知識과 한가지勢力을 【收】拾해야할時代인때문이다。

그런데 그生의問題가 이러케 先頭에 登場되는것은 偶然한時代가아니고 今日과가티 不偶然한時代라는것이다。人間이 個人的生活에잇서도 生의問題는 切實히 생각하는것은 偶然한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기를 ……見하얏다……나는 다만自己를 發見하얏다 오오나는 얼마나 큰 歡喜를發見한것인가!」그歡喜란 生에對한 歡喜다 그리고 이것은 主人公이 … 의나레가 스치고간뒤」겨우 恢復되는 健康이잇슬때에 한없는 世에서도 차슬수잇는 이엇다 내가말하고 시픈것은 現世에서도 차슬수잇는 것이다。

【薄】 일즉이 明朗한中世紀가아직도 未明한薄暗가운데서 『新生』에對한情熱과 意慾이 招來된것을 생각하면 今日에와서 生의問題가 先頭에오는것은 決코 現世에대한 理由업는 理解가아니며 意味업는 愛着은 아닌것이다。이時代에잇서서 文學의 情熱도 오직 이生의 問題와結托하야 그生을 理解하고 愛着을 가지는데서 現世的인 文學을 이룰것이라고 생각이 된다【完】

第十七回 朝美展評 ②

金復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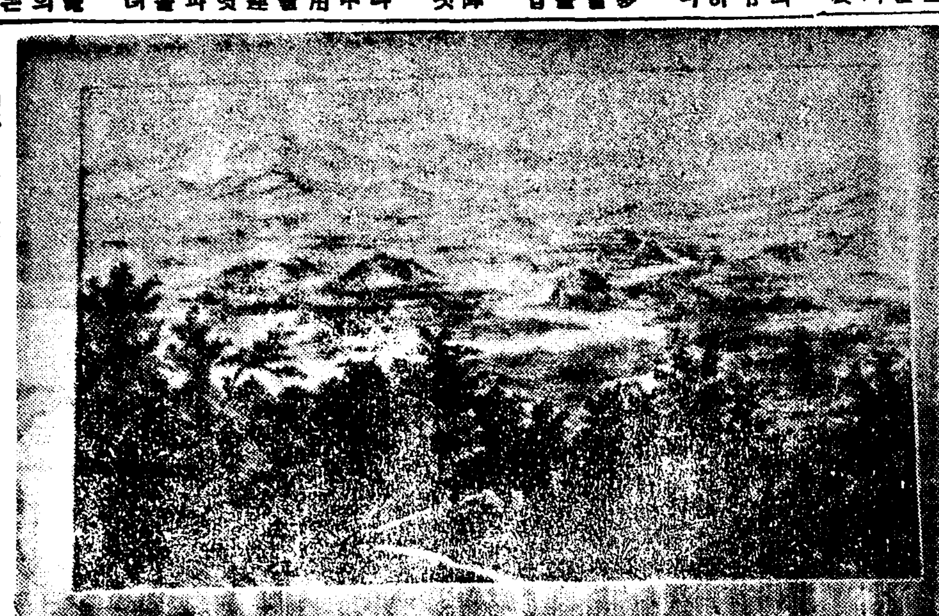
第一部 東洋畵

▲許楗氏『時雨霽晴』은 還山派의 窠臼의 觀念을 찾지못하엿스며 ▲金永基氏『忘憂里風景』은 許氏의作에 比하야 點在한家屋의描法이 宜當하며 色階의 階調를 엇고 ▲金基昶氏『夏日』은 時代와主義를 默倒하는 巧妙한 作品技巧도 여기까지 일은사람은 果然 드믈지나 안흘가한다 構圖의處理 寫實의至境 더욱作者의 勤勞를바라며 ▲李應魯氏『東園春事』는 安穩하엿든 故鄕(南畵)을 버리고 새로운 標榮의길을떠난 하나의移民 나는 이러케 생각하여보앗다 바야흐로 轉向期에 섯스니 折衷의破綻은 또한避할수업스리라고 ▲金重鉉氏『春日』은 畵幅의적은듯으로 머리에 오는것이弱하니 압날의 大作을 希望하며 ▲鄭道和氏『原遊』는 穠郁한結構인데도 不拘하고 억세인느낌을 갓게하니 洗鍊되지못한까닭이라고할가 ▲許林氏『困家』를 보고서 나는 나自身에게 이러것을 말하엿다 正路는 때로 荊棘의길이나 그러타고하여서 傍道를 찻지말라고 ○趙重顯氏『離觀』場內에서 오직 한點의翎毛畵 展覽會全氣를 通히呼吸하여서 畵同作을가지게된 數만흔 畵家들에게 示唆가잇것고 ○許漢氏『女兒』는 畵家로서의 聰明이不足하지나안흘가 限令치마주름의敗亂한것과 하나하나의線條에疑惑이 가득찻스니 이것을바리어 주엇스면하며 ○李漢九氏『春耕』은 아끼고多作을바라며 彼此에가린생각할 것은『畫家는 自己의缺點을 살리라』는 말을 다시한번뒤집어 생각할바이며 ○鄭鍾汝氏『山村水塵』은 出陣 南畵中에서 뛰여난逸品이라맛논다 ○金殷鎬氏『蓍蓮』을보고서 나는이러것을 느끼엿다 一年中 다만한번이래도 조용되 無用의細事에서超脫하여지낼수업을가 氏를잡아는 나로서는 連續되는 家患속에서 寸時를엇보아 執筆하든 氏의責任感과 劃期만한期日에 이만한것을 完成하여노는 氏의熟練이 부러워지며 ○李英一氏『山羊의圖』는 展覽會全體를通하여서 無鑑査級의 重責任한 出品中에서 빗나는 存在이리고 생각하엿스며

○李象範氏『暮靄』은 率直이 氏의 進境을 말하지안는다。氏의 畵格은 여기에끄치고말것인가는 氏의 周圍에잇는사람으로서 하나의 수수꺼끼이다 畵家는 創造만이 일이아니고 때로는 破壞의일도 하여보는것이니 氏로서는 既成의 自己體系를 부시여보는 冒險을 하여주엇스면한다 冒險으로 따러오는 困難이야말로 畵家로서의 生涯를두고 味覺할 오즉 하나의 誘惑일것이다 하므로『暮靄』亦是 莊大한 構圖이데 不拘하고 感受性이그리 銳하지안코 우리에게는 너무나 甘味를주는바이므로 氏를 爲하야서 自遊하여서 自己體系를 開拓하여달라는바를 말하는바이며

○朴元壽氏『靜寂』과 ○裵濂氏『谿谷』과 ○沈銀澤氏『靜郊』와 ○鄭用姬氏『村景』도 李象範氏에게보낸 忠言을 그대로 올리고저하나 여기에는 한창의附箋이 또한 必要하니 李象範氏는 氏대로 自己獨特한畵風을 아로새여냇거니와 以上諸氏는 李象範氏의 風度를그대로 傳受하여서 安逸을 음조리고잇다는點이 더욱생각거리이다 只今以上의 諸作을가지고 그畵家의 姓名을 바꾸어놋는다치드라도 누가 그優劣을말할수잇슬가 結局氏等은現在에잇서서 李象範氏의 附錄的活動을하고잇다고 極言을할수잇는만큼 反省의뒤길이 열려잇스며 우리들은 畵家가되려하며 決코畵師가되여지고십지안흠으로써이다

○宋己根氏『漲火可親』은 于先形態의研究가未開拓그대로이며 ○張遇聖氏『軟春』은 流暢에갓치고 ○李碩鎬氏『新鮮』은 氏의努力이반가워다


『靜郊』沈銀澤氏作 ——朝美展特選作——

鄕土文化를차저서 — 聖住寺巡禮 (一)

保寧行

李昇圭

四月十八日에 千年古刹聖住寺址를訪問하게 되얏다 上午十時에郡職員金亮敍君의 案內로 拓本技術者一人 隨行員一人을 同伴하야 大川市를떠나 東으로向하야 出發하엿섯다 때는四月中旬이라 天氣는淸明하야 사람의精神을 愉快케한다 路十五里쯤거러가니 半空에솟아잇는 半嶺峙가 前面에 當到하엿다 步一步前進하야 그嶺에 올라가니 鬱蒼한松林은 左右에더퍼잇서 압길을 稀迷케하고 間間이피여잇는 杜鵑花는 紅白이 相映하야 錦繡를點綴한듯하고 깍거질듯한 絕壁은 사람의발길을 부칠수업게한다 氣喘쓰고艱辛이 嶺上에올라가서 한참동안 앉는다리를 쉬이고 四面을도라보니 겹겹이쌓인 衆峰疊嶂은 天險의要塞城을 둘러잇서 사람의 갈方向을 알지못하게한다 나는金君의뒤를따라 또十餘里를가니 地勢가조금 平濶한곳이 나선다 얼마쯤가다가 金君이短杖을들어 前面을가르치면서 저기가聖住寺蹟址라한다 나는반가이눈을들어보니 莊嚴한乾碑와 四座의石塔이 나타나보인다 거름을 재촉하야 그곳으로 向하야가니 碑의여프로 조차 한사람이 나려와서 人事를하면서 아! 이번鄕土文化調査班이시오! 네그럿소!그는 반가운낫비즈로 나는이洞里區長李東稿이오! 數日前부터 本面長의指揮를바다 碑文拓本할飛塔準備하고 기다리는中이오한다 나는 感謝한뜻을表하고 가티가서 碑와塔을巡禮하게되엿다 距今一千四十八年前의 建物로서 古色이蒼然하야 白月禪師의殿碑와 崔孤雲先生의 文章과 崔仁滾先生의筆法이 뚜렷이眼前에 나타나보인다 碑는 龜趺雙蹈고 龜首를 敵하고서는데 高가十四尺이요 廣이五尺이요 厚가一尺四寸이요 石材는 藍浦烏石을 採取한것인데 그雕琢의精鍊한것과 刻勒의工妙한것은 新羅時代의 藝術의 眞價値를 자랑하고잇다 龜頭는 半面이떠러지고 碑身은中間에 傷痕이잇다 傳說을 들은즉 壬辰亂에 敵將이 大刀로 龜頭를첫서 한쪽이 떠러지고 다시碑身을치니 碑가 忽然히 半空에소사다가 다시 그자리에 나려안는것을보고 敵將이크게놀라 물러가다한다 또 이碑는 浮石이라한다 碑가臺趺우에浮在하야 碑底를 細絲로켜보면 이쪽에서 저쪽에나아가기까지 조금도障礙가업다한다 只今 세멘트로 碑底를 막어서 試驗하여볼수업다

塔은 碑의南方稍東에잇스니 五層塔二座가 또가튼 形式으로똑가튼距離(略四間)에 나란이버러서잇고 그前面에는 佛殿의 舊址가宛然하야 礎石이 田間에散在하고 그南에는 石燈籠塔가잇고廢塔兩傍에는 石獅子一雙이蹲坐하고 또그南에는 七層의高塔이서잇는대 彫刻의 手法은後方의 五層塔과 다름이 업다 이곳저곳에 柱礎와 石壁이散在하고 廢塔와 石墻이尚存한것을보면 昔時에 佛殿이얼마나宏壯하든것을 像想할수잇다

漢詩募集

題 蓮花
押 春
限 六月十日

一懷:友:隨:筆一 惡童 (下)

安懷南

裕貞은 일즉이 兩親을 여히고 외로웟다 그의 伯氏는 아우를 사랑하지 안는것은 아니엿스나 그러나몹시 放蕩하엿스며 酒癖이怪惡하엿다 數十萬의 巨財를 그냥 물뿌리듯하야 업새고 밤낫 술을먹엇스며 취하면 으레히 칼이나 주먹이나엿다。當時 裕貞이 決斷코品行方正한 生徒가 못된것은 이러한 家庭의 雰圍氣가緣由하엿슴이고 뿐만아니라 그것은 뒤에 오래도록 裕貞의 性格에 어떠한 影響을 주엇다고본다。

裕貞과 내가 가티서 씀이치야도듯는問題로 論爭을하다가는 그의 卑拙한 態度를 꾸짓고 그의빵을 때린일이잇섯다。그때 裕貞은한살年少한 동무의 아페서도 俗似히 暴虐한 自己의형님에게서 무서운 칼을 辨護하는때처럼 오직柔順하게 빵에다 나의 주먹을 밧는것이엿다。나는 착하고 가엽슨 동무를 때리고나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後悔하엿다。

後日 그의 집안이 아주 沒落하여젓슬때 裕貞과 그의 형님은 兄弟가 똑 가튼모양으로 더불한 머리에다 검정 두루매기에 팔장을 끼고 다니엿다。하로는 가픈밤에 大門밧게서 누가 찻기레 나가보앗더니 그들 두사람이엿는데 裕貞이 得意滿面의 表情으로

『일등아 우리 형님을 뫼시고왓는데 우리 막걸리나 먹으러가자』

그때부터 한동안 黑色周衣의 우리 蓬頭三人組는잡쌀막걸리 집이니 빈대떡집이니 갈비집이니 뼈다귀집이니 하는 목노로 橫行하엿다。

그러나 裕貞과 나와는 國籍가 서로 正反對로 되엿다。나는 나의 願하는대로 結婚에 成功하엿건만 그는 失戀하엿고 나는 祖母님의 遺産을 바다건마는 그의집안은 零敗하엿고 나는 健康하것만 그는 病床에눕게 되엿다 아니 나는 이러케 살고잇는데。그는 作故한지 이미 오래다 지금나는 古友 裕貞의 作品이며 日記며 書簡等屬 一切의遺稿을 保管하여 가지고 잇는데 내가 結婚하는날 當日의 裕貞日記를보면 그 一節에 自己는 幸福된 生活이란 永遠히 斷念하고 오직 藝術 그것과 結婚하야 一生을홀게다고 記錄하엿다 그때그는 失戀한 卽後이지라 동무의 이 慶事가 기뿌면서도 일면 몹시 부럽고 애달팟든 모양이다 아아 그러나 하날은 어찌하야 藝術과結婚하야 一生을 孤獨하게 지내겟다는 그에게 壽命까지를 아까워하여 夭折케 하엿는고。

지금 나에게는 親密한벗이 만흐나 아직 裕貞과가튼 동무는업다 그러나 現在 懷南은 퍽幸福스럽다 世上의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안코 아무것도 貪내지 안흐며 마음에 걸리는 무엇도 업다。猥濫한 소리이나 或은 裕貞이 꿈꾸엇든一部의 理想을 나는 지금實現하고잇는지도모른다。그러면서도 懷南은 사랑하는 妻子와 … 不幸한 親友 裕貞을 꼿을 이저버리고만다。이 한가지일로 생각하면 不幸한 裕貞에게 또한가지의 새로운 不幸일게다。裕貞을 위하야서는 작구슬푸기만 한일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어쩌는 수업시 가끔裕貞을 생각하게되고 한번 그를 追憶하게되면 아쉽고 안타까워견달수업다。넷날學校를 共謀하고 메여때린 생각이난다 그의 형님까지 흉볼려서 술로 鬱憤을풀든 생각도난다 金文輯君의 評言 말맛다 나거지가튼 끌로 동무를지저 彷徨하든 모양이 눈에 어른거린다。恒常 외쪽 사랑하는 戀愛를하소연하고 또 理論을 펴노든 그의일이뒤푸리 된다。

아아 裕貞은 昨年 이맘때 조금 압서서 죽고 말엇다。그리고 인저 고만이다。그러나 나는 事實 수업시 그를 追憶하고 몃번어나 몃번이나 괴로워 한것이 아닌가。그러라 裕貞은 한번죽고말엇스되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아프로 一平生을 두고두고 멧千번이라도 追憶하게되고 몃萬번이라도 슬퍼하게 되는것이다。(끗)

═偶═感═ 同姓名難

李殷相

天下 萬物에 다 이름이잇다 하늘과 하늘에 잇는모든것이그러하고 땅과 땅에잇는 모든것이 또한 그러하다。

나도 이法則을 따라 이름이라는것을 어덧다 내自身에게도 必要할일이지 그는마치 몰리도 남들에게는 내가이름을 가젓다는것이 펵便利하고 必要한 모양이다 내가 이땅에 머물고잇는동안 남들을 爲하야 나도이름이라는것을 가지고잇슬수박게 업다。

내自身의 생각에는 緊하지도 안코러니와 오히려 귀찬흔境遇까지잇는 이『이름』이라는것을 남들때문에 구태어 가지고잇는 까닭은 다만한가지 가튼사람속에서 남들과 區別을 짓는다는데 잇는것이다。

그러므로 萬一 同姓名의 異人이 잇슬때에 그것은 分明히 悲劇이오 滑稽劇이다。또한 作名의 本意가 喪失되어버리는重大한 錯誤가되는것이다。

李殷相이란 大韓의 이름도 진작 世宗實錄中에 同姓名의 古人이 잇슴을 보는것이오、粟谷이 李珥의 號로만 알되 그보담 압서 金逖의 號도 粟谷이엇스며 뿐만아니라 저「泰山이 놉다하되 하늘아래뫼이로다」한 有名한 時調도 李栗谷의 作인줄만알되 일즉 金粟谷의 文存속에서 가튼初章의 時調까지 잇슴을보앗다。

書肆에서 龍峰集을 어더 뒤저보면 그도亦是 둘이어서 하나는 宋龍峰、또하나는 金龍峰 이 얼마나 조흔因緣이냐。그러나 또 얼마나 귀찬흔 因緣이냐。

少年에 일즉 金剛錄을 뒤지다가『李殷相』의 毘盧峰詩를 보고 재주업는 손이 깜작놀라 無心코 책을덥어드린일이 잇섯、뒤에 이를 詳考해보매 그는 李宗時의 宰相으로 號를 東里라한 훌륭한 古人으로 鄭松江의 歌辭를 愛誦하던이엇다。

그러나 이因緣깁고 情다운 李殷相은 이미 서로 百年을 사이한 古人이매 저도나를 어찌수업고 나도저를 어찌수업는일이다。

이가튼 同姓名者도 時代를隔하야 생겨잇슬때는 오히려 區別할수가 잇것스나、가튼時代가튼땅에서 이러한同姓名者가잇게 되는境遇에는 一種의喜劇이잇슬수잇는 可能性이 充分하다。

내가 過去에 同姓名으로일어난喜劇에 여러번出演한일이잇다 丈母喪을걸어 訴訟을提起한 滑劇도잇섯스나 나는『多幸』히丈母喪을가진사람이라 寶物이아니엇고 鍍路의 富裕家를 아는어떤나그네가 내집을 차저왓스나 나는 貧寒한사람이라 失敗하고 돌아간일은 悲劇이어니와 故鄕의親故가 齋松洞어느골목에서門牌를보고 반가이 뛰어들어갓다가、老主人에게 辱먹고돌아나온 일은 喜劇이엇다。

이게 다 내게는 귀찬흔因緣이로되 도로이로서를 우숨의資料를삼앗더니 멧날前、北中으로서 돌아온 멧親故가 내가 滿洲國高官이 되엇다는 消息을듯고와다가내가여기잇슴을보고 놀라는것이엇다。

呵呵! 이여러 同姓名들。그들흔이富하고 흔이高하고 또흔운이가티 貴한이들인데 어디서『내』라는 이同姓名者는 가난하고微弱한存在로 여기 이 괴로운이름을 집어썻는가。

세상에와다가 富貴貧을 누리는저들、나와 同姓名을 가진저 有緣者들이어。平安하라。

세상도 또한 가튼이름을 記憶할지댄 잘난저들을 알아둘일이오、날가튼者는 이저버리는것도 可할것이다。

——六月六日——

鄕歌解疑 (四)

田蒙秀

卯乙

鄕歌의 末句에 慕竹旨郞歌(孝昭王代)卯乙이 …가 잇다。

『卯乙』은 무엇인가。

鮎貝氏는『卯』를『耶』의 誤讀로생각하엿는지、氏의 著『朝鮮新文學選』에는 이를『耶乙』이라하엿다。(一五八頁)

지금도『卯』를『夘』로 쓰거니와、金富軾의 三國史記와 僧一然의 三國遺事에도『卯』를 흔히『夘』로 쓰니、이『夘乙』의『夘』도『卯』의 誤寫로 봄이 올흔것이다。小倉博士도 이를『卯乙』이라 記하고 잇다。

그런데『卯乙』은 무슨뜻인가。

鮎貝氏는 이를 不明이라 하엿고、小倉博士는『卯』는 音『묘』、『乙』은 音『을』이므로『묘을』이라 읽고、『묘내』란 國語의 대신으로 쓰인것이라 보고저 한다 하엿다。(前揭書一九一頁) 古語에『묘을』이란 말도 없을뿐더러 現代의 말에도 이런 新奇한 말은 듣도 보도 못하엿다。

나는 이를『늘』이라 解하고저 한다。康熙字典『卯』條를 찾아보면、

卯 古文夘

이라 하고、또『宋祁筆記』라 한 아래에는 古文卯本柳字 後借爲辰卯之卯云云 이라 記하여 잇다。이에 依하야『卯』의古音이『류』임을알수 잇지 안흔가。

또 同書의『卯』를 찾아보면【晉書樂志】라한 말에、卯茂也 謂陽氣生而蕃茂也 라 씨어잇다。

『卯』에『류』(『류』에 서로 通한다)의 音이 잇고、또 이런 意의『卯』에『茂』의 精力旺盛하다는 뜻의『卯』字를 借用함이 언뜻 재미잇스므로 그 初聲音 ㄴ을 取하여『卯乙』로써『늘』을 表한것이다。

그러므로 本句는『慕竹旨郞이바 버 늘엇고간다』로 된다。

漢詩

題 梨花
押 香
桐岡考選

佳作之十　東萊邑壽安洞四二八　朴基汝

枝枝嬌艶弄春光
半掩重門半掩墻
堪訝是氷含冷氣
始知非雪動淸香
同姿只可隨園李
異色何須與野棠
飮水看梅休足笑
爲君我亦洗殘粧

음식을자신후에는반듯이 가오-루를무세알식!

口中殺菌劑 가오-루 衛生口錠

입으로들어오는病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더위를잇게하고 쇠약을방지하며 입맛을돗아주고 먹은것을 모도 살파피로 가게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가오-루의三大약효로써 明朗한健康生活을하시게되는때문입니다…★

①夏節에심한모든病을豫防함
口中殺菌劑가配合되어잇는까닭에 입으로들어오는모든病菌을 죽여서 병에걸니지않도록하며 늘 미전에예방을하여줍니다

②健康케하고 精力을돗아줌
健胃整腸劑가 배합되어잇는까닭에 먹은것을 모도살파피로 가게하며 胃腸을 늘튼튼히하여주어서 精力을분돗아줍니다

③상쾌한기분을 늘보존식힘
淸凉興奮劑가배합되어잇는까닭에 心身의機能을왕성케하여주며 精神을상쾌케하여줌으로 더위를잇고 지내실수잇읍니다

그러므로 가오-루에配劑된高貴藥은 心身各機能의活動力을왕성케하여주며 胃腸을 튼튼히하고 입맛을돗아주어서 여름쇠을방지하며 精神을 늘상쾌케하여줌으로 더위를잇고 늘서늘한기분으로 민활한活動을하실수잇으며 더욱히 피곤함을잇게하야 내일의活動力을 분돗아주는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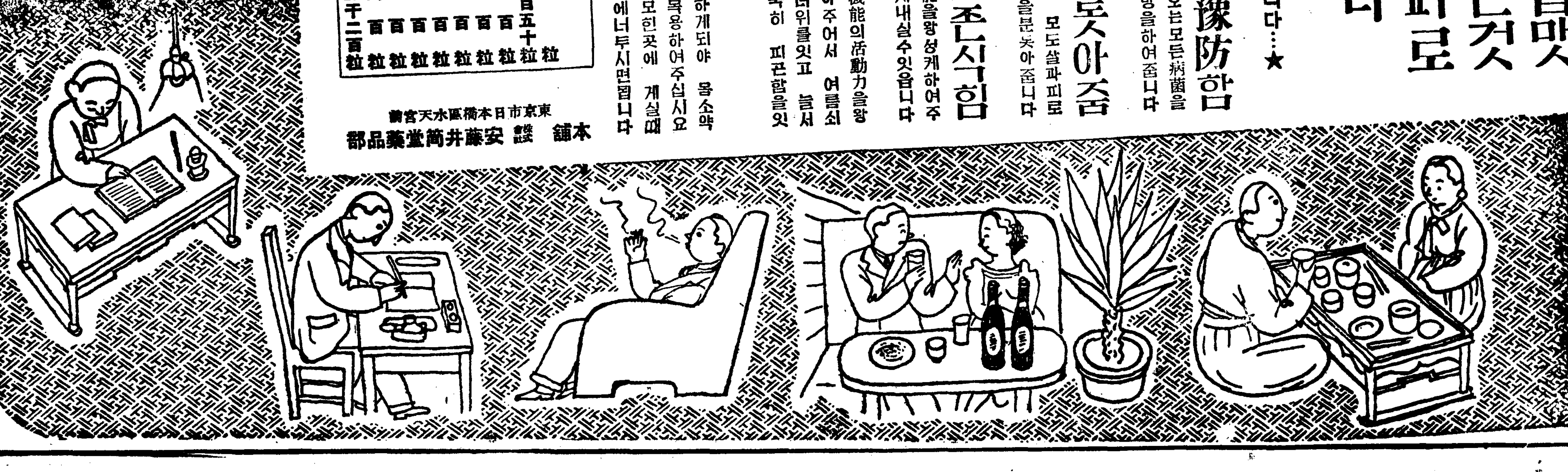
여름은 구미가떠러저서 飮食을잘잡수시지못하게되야 몸소약어심하게되기쉬우니 음식전후에는 꼭本劑를복용하여주십시요 또한 出入하실때 전차 기차 타실때 사람모힌곳에 계실때 구경하실때 사무나일하실때에 부세알식口中에너두시면됩니다

☆모양조은防濕瓶入가오-루는적 德用的이오며 夏節에도 습기를 지지않음으로특히愛用을바람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携帶用防濕瓶入	(二十五錢)	三百粒
포켓트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本舖 (販賣) 安藤井筒堂藥品部



事變下의 우리小工業 ⑦

事變의 影響업시 全盛하는 鐵工業

鑛業熱로 將來益期待

產業上 國防上 不可缺한 이라는것은 再言을 要치안는다 家庭用의 적은 못으로부터 軍艦大砲에 이르기까지 其領域은 자못 廣汎한것으로 文化의 發達하 其需要도 漸次 擴大되고 作에 이르러서는 鐵工業에 고잇는터이다 朝鮮은 總人口의 八割가량이 農業에 從事하는 農業國으로서 모든 地理的條件에 惠澤을 바든 關係上 產業開發의 重點을 農業에 두어왓섯다 그러나 農業을 主로한 發展은 여러가지 制約을 免하면서 產業開發의 方向도 鑛、工業等으로 轉換치안흘수업는 情勢에 處하게되엿다 그런데 朝鮮에는 諸種의 鑛物이 豐富하나 其事業은 흔하지 업섯다 그래서 總督府에서 朝鮮鑛業令을 制定施行하야 其鑛業的價値를 밝히는同時에 金銀銅의 鑛業의 發達을 促進시키어 各種 工業資源의 開發에 着眼케하엿다 朝鮮에잇서서의 製鐵業이라고하면 대장간이라고해서 낫、호미、삽가튼 적은農具 정기를 만드는곳이 地方으로가면 아직도 적지안흐나 어려운 手工業的工場은 漸次로그림자를 감추고 적으나마 二馬力三馬力의 發動機를 設置하고 作業하는 小規模工場이 族出하고잇다 京城에도 이미 十數年前부터 鐵工業의 小工業이 發達되어 ……

(K記者訪問記)

肥料配合比率을 根本的改正意圖

化學肥消費節約코저

明肥料年度로부터 實施할 肥料配給合理化會議는 六月中旬東京에서 開催될터인데 總督府로부터는 農林局尾崎技師가 出席할 豫定이라한다 그래서 尾崎氏가 東上하기때문에 今年度의 肥料配給會議는 同氏歸任後 即時열리기로 될터인데 빠르면 六月下旬 或은 七月上旬頃 開催케될터이다 明肥料年度는

一、朝鮮米品質低下防止에 備하야 水稻用配合肥料에 約三萬噸의 有機質肥料(主로魚肥)를 移入하는外

一、加里及 過燐酸石灰의 消費統制를 行하야 技術的으로可能한 範圍에서 極力그消費를 節減하며

一、硫安을 節約키爲하야 石灰를 만히쓴다

는等 配合比例는 根本的으로 改正할 必要가잇는데 이것들은 技術的 問題外에 配給價格及包裝容量의 改訂等 問題도 잇스므로 會期도 相當히 延長케될것이다

過燐酸公定價

朝鮮은不追隨

販案으로된 過燐酸石灰의 公定價格은 明肥料年度부터 實施하기로 商工省에서는 決定한模樣인데 過燐酸組合에對하야 公定價格認可申請手續을取하도록 慫慂하엿다고傳한다 그런데 過燐酸은 燐鑛石의 輸入難으로 大端히 昂騰하야 價格統制의 必要가 絶叫되고잇서 相當한迂餘曲折이잇슬것이라도 決定될것은 疑心업는바이다 그리고 公定價格이 드디어 實施될境遇에는 朝鮮도 어데追隨할지 자못注目되는데 여기에 對하야 農林局은 朝鮮과 內地를 一貫할수는업슬것이다, 아모리해도 C·I·F로가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라고 말한다, 即過燐酸은 硫安파달러 朝鮮內生產이 不足하야 大半을 移入하는關係上 朝鮮內地를 一貫한 一本價格하면 供給이 不足될 念慮가 잇서서 當分實施할 意向이업는것이 明瞭한듯하다

玉筋魚利用法

水產會講習會開催

【咸南支社發】咸南水產會에서는 沿岸全部에多數漁獲되고잇는 玉筋魚의利用法에對하야 여러가지로硏究한結果 이것을 「조구다니」로하야 널니販賣키로 되엿는데 이實行에압서서 沿岸漁民에게 製造講習會를 開催할準備를하고잇다 이玉筋魚는 六月中旬부터 七月中旬까지 漁期인대各地에서 漁獲하여그價格은百斤當二十五圓乃至 三十圓의 高價품이고 잇는데 水產副業品으로 매우有利하다

忠北田棉作技術員會

【淸州】忠南道農務課에서는 道內各郡 田棉作技術員을 召集하야 去六日부터 兩日間道廳第一會議室에서 技術員會議를 開催하엿는데 協議事項과 指示事項은 如左하다

◆指示事項

一、棉花增產計畫의件
一、棉作推肥施用의件
一、棉作反別調査의件
一、棉花共販에關한件
一、棉種子代徵收의件
一、田作物優良品種種子更新에關한件
一、田作改良指導圃指導의件
一、麥의適期刈取勵行의件
一、麥類黑穗病豫防實施의件
一、婦人屋外勞働獎勵의件

◇協議事項

一、棉作指導의基本整備의件
一、棉作土地選定의件
一、棉作配合肥料購入並成分率의件

決定의件

一、陸地棉耕種標準變更의件
一、小麥共同販賣斡旋의件
一、軍用馬糧大麥供出의件

五萬瓩目標로 松脂生產獎勵

全南道宣傳에大熱中

全南道山林課에서는 副業으로 道內山林七十八萬町步中 五十八萬町步를 占하는 松林에着目하고 松脂生產을獎勵하게되여 今年度는 爲先 五萬瓩의生產計畫을 樹立하엿다

昨年의實收高는 겨우 四百四十瓩에 不過하엿지만 이것이全日本에 第十五位로 되엿잇스므로 五萬瓩生產이實現되면 全日本의 第一位를 占할것은 勿論이다 그런데 朝鮮赤松은 內地產 赤松에比하야 테레빈含有量도만코 生產收量도 二倍에達하므로 將來의 躍進이 期待된다

石首魚暴騰은

產卵期의濫獲이原因

朝鮮에잇서서의 水產額은 總督府水產課의 水產物增產計畫과 相俟하야 逐年增加하고 잇스나 其中에도 西海岸의特產物인 石首魚는 昭和八年度부터 每年約二割가량씩 減少하고잇서十一年度總產額은 一萬八千瓩으로 最近에는 市價百束에 七十五圓이라는 未曾有의 昂騰을 보이고 잇는데 이것은 『가마보꼬』의原料로서 多量이 內地로移出하는 原因이라는 等 여러가지說이잇으나 產卵期의濫獲이 原因이라고한다

湖西地方麥作

【長項】湖西地方에 今年麥作이 大減收하엿다 昨年麥作에比하면 一割五分減이고 平作에比하면 一割二分減으로 兇作의原因은 春期早魃이라하며 刈取期는 來十日부터 四日間으로되리라고한다

同課에서는 五月下旬부터 六月上旬에亘하야 道內各郡에 專門家를 派遣하야 生產講習會를開催하고 宣傳에 努力中이다

支那關稅改正으로 朝鮮梨初輸出

平安丸으로上海向發

朝鮮梨의 名產地인 鎭南浦에서今般비로소 上海에百二十箱子의梨가 五日出帆의 朝鮮郵船上海航路平安丸으로 初輸出되엿다 從來는 支那의關稅가 十割이나되엿스므로 輸出할수업섯던 것인데 通稅關稅改正으로 一割五分이하로되여 今般처음 朝鮮梨가 上海에初輸出된것이다 今後에도 最盛期가되면 釜山으로부터 輸出할計畫이며 朝鮮產의 梨가 上海에서 氣焰을吐하게되엿다

繭綿桑皮等

共同販賣獎勵

【全北支社發】完州郡內各面의今年度春蠶은 例年에 比하야 好成績을 이루엇는바 繭價에잇서서도 上等繭一貫에 四圓七十錢에 達하야 農村養蠶家에서는活氣를 보한 形勢이며 道蠶業係에서는 此際에 養蠶家의 生業을 一層伸長을 圖하기爲하야 報國의 一端으로 從來藥物等中에 繭絲綿物桑皮를 買入하야 利用토록 各共同販賣所에命하야 取扱토록하엿다한다

▲共同販賣取扱件

道內製產의 繭綿은 全部取集할 計畫으로 一貫에 四圓식

三百萬貫目標로 苹果栽培獎勵

咸興產組三個年計畫

【咸南支社發】咸興產業組合管內의 苹果栽培面積은 昨年末現在一千二百町步나되는대 同組合에서는 咸興地方의 風土로보아서苹果의 適地라는斷定하고 積極的으로 獎勵하야 三年後 十六年度에至하여서는 千五百町步 三百萬貫의突破를目標로하고잇는데 咸興苹果도一躍咸南特產物의 하나로 完全한地盤을가지게되얏다

春蠶共販

各地에서開市

屯浦 今春生產한 春蠶繭共同販賣를 左記와如히 取扱한다는데 一般當業者들은 產繭을 自宅에서 精選하야 早朝持參하기를바라다한다

貯蓄獎勵化

金聯慶北支部

【慶北支社發】金聯慶北支部에서는 國策에對應하야 消費節約貯蓄獎勵를 徹底的으로强化하고잇는바 同支部에서는 一層意義를 加하기爲하야 今月下旬에 道內를 四區又는 五區에 分하야 金組理事協議會를 開催하고 組合員增募 殖產契에依한 貧庫建設에因한 購買販賣業의擴張을圖할터이라한다

牙山仙掌金組

貸付、預金모두減少

【仙掌】忠南牙山郡內 仙掌金融組合에서 一般組合員에게 貸付한金額과 預金高를보면 如左하다 昨年度現在 組合員總數 一千九百四十九名에對한 特別貸付金과 普通貸付金額은 三十九萬四千七百九十圓九十九錢이란 巨額에達하엿스며 預金額은組合員預金及定期貯金이 四萬四千百七十二圓八十七錢 非組合員預金及定期貯金八萬二千九百二十八圓二十二錢이라한다 이것을 昨年九月末總計보다貸付額은 二萬餘圓이나減少되엿다하며 預金額도 四萬餘圓에減少를보이고잇다

其對策을講究하리라한다

天安에선苗板에 稻螟蛉이襲來

一般農家는驅除하라

【天安】忠南天安郡內는 苗板에 稻螟蛉이라는害虫이 襲來하엿는데 그대로두면 全滅狀態에 이를것으로 農家는 勿論이오 農食인 天安에잇서서 一般이크게 憂慮하는데 當農家와郡當局은驅除에全力을다하는中이라한다

一、販賣期間 自六月八日 至六月十六日 向九日間
二、受附時間 自午前八時 至午
三、販賣場所 牙山郡廳前廣取扱場
四、代金支拂 即日拂

盈德 慶北盈德郡에서는 農家副業으로 蠶業獎勵에 注力하야 每年春蠶期에 三萬餘圓의繭價가 收入되여오던바 今年에도 掃種交付 三、二三枚로 現在까지 飼育狀況成績은 良好하야 左記와如히 郡內三處共販을開始한바 比前年特等繭價 貫當六十錢 餘錢値下로 一般業家에서는 憂慮中이라고한다

期間 盈德 自六月四日 至廿五日、寧海 自六月八日 至廿五日、知品 自六月四日 至十五日까지

特等三、一〇錢 一等二、八四錢 二等二、五七錢 三等二、三一錢 四等二、〇四錢 等外一、七六錢 中繭一、七六錢 屑繭八五錢 玉甲一、九二錢 玉乙一、七一錢

慶北 蠶業의王國慶北道今春實際의 掃立枚數는 前年보다若干增의 原蠶種 其他合計十二萬四千七百十七枚에 達하야 例年에比하야 良好한便이라한다 이미上簇을 보게되여 四日부터 共販開始되엿는데 今月下旬頃이 蠶繭出廻의 最盛期라한다 그리고 道當局에서는 豐作을豫想하고 聞慶郡加恩及華化郡詳寧面等의 二個所에 共販所를新設하엿스므로 道內共販所는 發城外九十個所라한다

스、파混用令附則

卸賣業者十一名指定

스·파混用令附則에 基한同令施行前製造에 關한幅四十五糎을 넘는綿織物로서 重量三割以上의 스·파其他綿又는 毛가아닌 纖維를混用치안는者는 卸賣業者에 잇서서는 六月一日 以後小賣業者에잇서서는 九月一日以後 國內消費에 充키爲하야 販賣又는 滿州國或은 關東州로 輸出할수 업게되엿는데 附則第二項의 卸賣業者로서 左記十一者가總督府로부터指定되엿다

綿織物生產者(手紡織業者를除함)
伊藤忠商事株式會社
日本棉花株式會社
東洋棉花株式會社
株式會社富永商店
同 八木商店
同 丸紅商店
高瀨合名會社京城支店
竹村棉業株式會社
丸宮商事株式會社
又一株式會社
江商株式會社

새로登場한副業 緬羊이란어떤것

⑥ 飼育管理方法如何

(2) 切斷法 緬羊을 保定하고 尾根部를 緊縛하야 第二又는第三關節로부터 銳利한 小刀로切斷하고 出血은 路鐵로中止케한後 緊縛을 解한다 이方法은農村等에서 小數의 仔羊에 對하야 施行함이 適當하다 切口에는 沃度丁幾의 消毒藥을 撒布하면 好成績을 어들수잇다

(다) 去勢 仔羊은 將來種牡羊으로하는것外 去勢하는便이 牡羊으로써의 性質을 喪失케되므로 管理上又는 飼育上조흐므로 特殊한 牧場以外는 一般的으로行하고잇다

去勢는 生後七日乃至十日쯤하면가장 完全하다 仔羊을 斷尾하는때와가치 保持하고 陰囊을露出시켜 그尖端을 三分之一되는데를 切斷하야 睪丸을 미러내면 二個가 나란히露出되면서 나오므로 이를 右手의 食指의 第二節우에 노코挾指를로 누르고 아하다 體는 剪斷鋏으로 끈는것이조흔데 年二回쯤 蹄症等에 걸리지안토록 또는 膿瘍症等에 걸리지안토록 抑制하여주어야한다

(마) 耳標 耳標를 附하는者等여러가지가잇다 金屬製의 耳標法

(라) 耳標法 農家가 小數의 羊을 飼育할境遇에는 耳標를 附할 必要가 업스나 大牧場에서 多數를 飼育할 境遇又는 血統의 登錄을 行할 境遇에는 必要하다 耳標는 耳朶의 가장자리를 剪取하야 番號로하는者、番號를 符한 金屬製의

(바) 藥浴 羊虱等外 寄生虫驅除 皮膚病豫防을爲하야 每年一回藥浴을 行하여주미조타 特히藥浴은 皮膚를 튼튼히하고 羊毛의 生長을 增進하는效果가잇다

藥浴 方法은 緬羊一頭의體量 감을만한 浴槽即 直徑一米 深六〇糎쯤되는 桶에 부처서 削湯所를 만드러서 藥浴한 緬羊을 그우에 올려노코 被毛에 적세잇는 藥液을 짜서 浴槽에 도로드러가도록 設備한다

藥浴은 緬羊組合等에서 合同으로 行하미 得策이오 小數飼羊者 個個로行하믄 藥液消費關係等으로 不利益이다

藥浴劑는 쿠-퍼氏藥浴劑를使用하던지 又는 左의 調劑로有效하다

煙草煎汁 一% 五立、硫黃華 五〇瓦、軟石鹼 五〇瓦、水 九五立

(사) 驅虫 緬羊에는 寄生虫이 여러가지의 胃腸(해몬쿠스·코르)를다스等이 부러서 榮養을 害할뿐아니라 甚한者는 生命을 侵害하는일도잇스므로 春仔羊의 離乳時와 秋離乳가 엇서질때의 二回는 적어도 驅虫하지 안호면 아니된다 驅虫藥은 硫酸銅百倍溶液을 成羊一〇〇瓩仔羊은 三〇瓩乃至五〇瓩을 七日式隔하야 二回投藥한다 投藥方法은 一晝夜絶食絶水한후 먼저 緬羊을 一晝夜絶食絶水하야 驅虫藥을 服한後空腹에 비로소 飼料와 물을平常과가티給與한다 (完)

敗家亡身의淋疾은
『ネオヂリン』으로根治하소서
(各地有名藥店에잇음)
京城本町四丁目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密航者와 "뿌로커" ! 百廿名一網捕盡

密航船이 暗礁에 걸녀 浸水騷動

救助하야 마침내 檢擧

【慶南支社發】일본내지도항자지로 말미아마 각종 범죄가 꼬리를물고 날로증가하고 잇슴으로 일반사회에서는 그진전에대하야 심히우려하고잇는바인데경남도내만 작년중통계가 삼백십육건에 사백사십팔명이며 부산수상서에서만 취급한 지난오월중의 건수가 일백사십건이나되여 그대부분이 밀항사건으로점거된 수짜로서 밀항범죄의 특수지대를 형성하고잇는데 최근오전세시쯤되여 또다시 밀항자일백여명과 뿌로커 다섯명을부산수상서 고등계원이 검거취조중이다 거창군웅양면궁조리(居昌郡熊陽面宮祖里)에 본적을둔 전과유범 리경수(李敬守)(二二)외 두명인데 상엇전에 부산서에서 처벌을당하고 출감한전과오범 송야웅일(松野雄一)(二〇)— 밀항선군 강경읍(論山郡江景邑) 김성한(金成漢)외 일백이십여명을 서면동호리(西面洞湖里)와 신선대(神仙台)또는 동래남면해운대(海雲臺) 동지에 잠복식혀두엇다가 밤열두시쯤되여 해운대부근에서 도항일백여명을 승선식혀 출항하엿스나 이십톤밧게되지안는 발동선에 일백여명의밀항자를 실엇스므로 해운대 바다에서 암초에걸려 파괴를당하고 침수가되여 대소동을일으키고 잇는것을 맛침 그부근을지내치는 토목국 출장소(土木局出張所)소속선 제이용두환(第二龍頭丸)이 발견하고 구조하야 입항하엿슴으로 뿌로커일당은수상서에 검거되엿는데 전기수괴 리경수는 일찍뿌로커의 거두로서 부산부내에 여러차려밀항두고 부하수십명을 동원시켜농촌으로 출장시켜밀항자를모집한 건수가 무려이천여건이나되며밀항료로 바더먹은 금액이 삼만수천여원에 달하야 수상서에서도 그를검거코저 매우고심하엿다고한다 그래서 이기회에 그일당을 철저히 소탕하기위하야 그소굴을 엄중탐색중인데 취조에따라 관계자를 모조리타진하리라고한다

高物價의調節에

平壤署積極的으로着手

【平南支社發】평양서에서는 머물가를 모르고 올나가고잇는물가(物價)를 조절하고저 기보한바와가티 물가조사를 하고잇는데 일용잡화중에서 제일만히 동요해진것은 면포(綿布)로 작년칠월 지나사변전에 비하여 현재의 가격은 최저오할로 라수건(手拭)가튼것은 삼할이상의고등을보게되엿고 그다음이 현재(木材)류등으로 구드는 오할 일미는제동오할 기타전반물품도일이할이 폭등햇다 주요식품인 쌀(白米)과 기타곡류(穀類)는 도로혀 나리고잇는경향이다 그러나 금후물가조정은 이조사물가를 기초로하여 금후대책을 강구하기로되엿고여기에서 리윤업는 고가를요구하는 상인은 발견되는대로 엄벌에처하기로태도를결정햇다

坑內에서作業中 坑夫三名負傷

【永興】오일오후세시경 영흥군(永興郡)에 소재한우현광산(牛峴鑛山)의학구지하 심이미돌되는 지점에서 발파작업(發破作業)을 하고잇든 고판선(高寬善)(二?)은 중상을당하고 남은두명은 경상을당하엿다는데 원인은 폭약의재폭발로인한일인듯하며 부상자들은 구장에당의원(醫院)정공의(鄭公醫)가 지급출장하여 응급수당을 가하고 고판선(高寬善)은 현재입원치료중이라한다

馬洞煤煙事件 三人無罪釋放

【沙里院】마동(馬洞)천야(淺野)세멘트회사 매연(煤煙)문제로서 경찰에 검거되엿든 오신어명중 결국삼명은 검사국으로 넘기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후검사(檢事)의 관대한처치와동 세멘트회사 간부들의 특별한노력으로 지난육일에 권용호(權容浩)장홍정(張弘正)김(金)○○은 무사히 석방되엿다 이것으로 세상의이목을 놀래이든 매연문제는 완전히 낙착되엿다한다

職工殺害犯에 十年懲役言渡

【全南支社發】광주부광산정(光州府光山町)에 잇는 죽구인쇄소(竹口印刷所)직공 원석구(元錫九)(二九)와 알력공부(?)와 사소한싸움끄테 전기알력는 원석구를 살해하엿스므로 공판에회부되어 지난오월삼십일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의부공판이 개정되엿든바 사실심리가 끗난후 합천(?)검사로부터 징역십오년을 구형하엿섯는데 작일오전십시에 상야(上野)재판장으로부터 징역십년을언도하엿는데 피고는 공소권을 즉시포기하고 복역하기로하엿다

"팔푸"原料大不足 蘆草栽培를計畫

龍川郡新島面迎門岡에서試驗栽培

平北産은世界的으로優秀品

【新義州】목하공사중에잇는 신의주왕자제지(王子製紙)은 예정마가 명년에 완성될모양인데 공장설계에의하면원료인 로초(蘆草)생산이불 충분함에 지나지못하야 그간 조사한결과 용천군신도면(龍川郡新島面) 영문강이 가장적당함으로 동지에 시험재배를 하는동시에 재배결과에 적지안은 기대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평북산 로초는 팔푸원료로서 영구산에 비하야 조금도손색업는 세계적우수품이라고한다

少年窃盜逮捕

【咸興支社發】함흥서에서는 며칠전부터 대활동을 시작하야시내와서호(西湖)에출동하야 소년절도단 네명을 일망타진하엿는데 그들은 부내만세정(萬歲町)일정목 최만수(崔萬洙)(一?)를 단장격으로 공모하고서 지난사월중순 틈々이 집을 비우고 다니는틈을타서 침입절도를전문으로 하야왓다 자백한것만 삼십여건에 천여원의 거액이되는데 소년들의대담한 범행에 놀나고잇다

泗川郡廳內에서 邑面長會議開催

【泗川】사천군(泗川郡)에서는오는십일오전구시부터 군회의실에서 신임군수박영근(朴寧根)씨사회하에읍면장급학교장(邑面長及學校長) 회의를 개최하고 주로 시국에 관한문제와 농촌진흥운동등제반사항을 지시할터이라하며 그이일인 십일일오전구시부터는 당지읍내소학교(邑內小學校)강당에서사천군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를개최하게되엿다한다

戰時下의全南 貯蓄委員會

【全南支社發】전시에잇서서 일반국민이 절약을 하고저축을장려하도록 각도에서는 저축위원회를 조직하고잇다함은 본보에 기보하엿거니와 전남도에서는오는십삼일에 도회의실에서 제일회전남 저축위원회를 개최하고

長篇小說 林巨正 【113】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 (八十一)

방안의 자든사람이 다 일어낫다 황천왕동이가 밧에 들어와서 절할데 절하고 인인사할데 인인사한뒤 배돌석이가 비켜주는 자리에 와안젓다

『어듸서 자구 이러케 일즉와나 비선거리서 잣나』

배돌석이 뭇는말을

『아니요 어제석후에 이천읍네서 떠나서 내처 밤길루 왓소』

대답하고

『무슨 급한일이 생겻나』

리봉학이 뭇는말을

『큰일이 하나 생겻세요』

대답하고

『큰일이 무슨큰일이냐』

꺽정이 뭇는말에

『어제 백손이가 이천읍에 잡혀가첫습니다』

황천왕동이는 비로소 밤길로 급히온 연유를 말하얏다

『무어야 백손이가 잡혀가치다니 그게 무슨소리냐』

『어제가 이천 장날이지요』

『그래』

『애기어머니가 실인가 무어를 사오라구 명녹이를 장에 보내는데 백손이가 장구경을간다구 따러갓답니다 저는 가는줄두 몰랏지요 아침에 누님을뵈러 들러갓드니 누님이 말씀을합듸다』

『그래 장에 가서 무슨짓을하구 잡혀갓단말이냐』

『말안쿠 간것이 괘씸해서 꼿조처가서 붓잡어오구시픈생각두업지안햇습니다 이왕간걸 그러케까지할것은 업기에 고만 내버려두엇드니 해가 승석때나 되여서 명녹이 혼자 왓겟지요 도련님은 어듸가구너 혼자 왓느냐구 물으니까 명녹이란놈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백손이는 별루 잘못한것두 업습듸다』

『잘 잘못간에 일이 무슨일이야』

『둘이 장에가서 살것 사구 구경할때 구경하구 떡으루 점심요기를하구 돌아올적인데 백손이가 애기 준다구 엿을 좀 사가지구가자구 하드랍니다 그래서 명녹이가 강엿하구 바둑엿하구 섞거샀든데 강엿이 화덕내가 나서 엿장사를 보구 마저 바둑엿으루 바꿔달라구햇더니 그엿장사가안바꿔주드랍니다 엿장사 말은 이모저모 떼어먹구가지구와서 박귀달란법이 잇느냐구하구 명녹이 말은 물려달라면 모른지만 박귀달라는데 못바귀겟노 무어냐구해서말다툼이 낫는데 매방스러운명녹이란놈이 성갈이나서 안바꿔줄라거든 네나처먹어라하구 강엿쇠을 엿장사 얼굴에다내던젓답니다 뜨거운 손에서를 쥐엿든 엿쪽이 얼굴에 척드러부터서 엿장사는 눈을 뜰수가업다 눈을뜰수가 업다하구 해블뭐는데 갓가이와서모여섯든구경꾼들은 모두 웃드랍니다 백손이두 여러구경꾼들에 석겨서 웃고구경하구잇섯답니다 사령 한놈이 어듸서 보구 구경꾼들을 잡어제치구 들어오드니 불문곡직하구 명녹이를 어맥치구 저뺌치구하는데 명녹이가힘거두못하구 맛는것을 백손이가보구 구경꾼틈에서쫏차나와서 그사령을 보기조케 메어꼬젓답니다』

황천왕동이가 숨을 돌리느라고 이야기를 중간에 잠시 끈처니

『그래 엇더케돼서 뒤쪽으루 잡혀갓단말이냐』

꺽정이가 이야기끄틀 재촉하얏다

『백손이가 명녹이더러 고만가자구해서 둘이 바루 광복으루 나오는데 뒤에서 불과 한이마장쯤 나왓슬때 뒤에서이놈들 게잇스라구 소리를훌질르며 사령 여닐곱놈이 쫓차오드랍니다 명녹이가 빨리도망가자구한즉 백손이 말이이런때 서루 흘보다가는 낭패보기가 쉬우니 각각 도망하자구하드랍니다 명녹이가 그말을 고지듯구 저혼자 도망질을 처서 오는동에 백손일어 종시 궁금해서 돌우 갓답니다 가면서 아들 바라본즉 먼저 도망하자구 말하든 그자리에서 백손이가 사령들에게 붓잡혀 묵기는중이드랍니다 명녹이가 제힘으루 빼서올수는 업구 가치잡혀갈기나하려구 아프루 더 나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마저 잡혀가면 소식을 통히 몰을것가려서 혼자 왓다구하구 제잘못으루 이런일이 낫스니 치죄하야달라구 대죄한답니다』

『그자식은 나잡어가거라하구가만이 한자리에 서잇섯단말이냐 그랫다면 그런 더러운자석이 어듸잇단말이냐』

하고 꺽정이가 소리맛을 다시엇다

總督府測量班五名 七日부터實測着手

三湖港築港의前奏曲

【三湖】일만오천 주민의 사활문제를 좌우하는 삼호축항문제는 거금 사오년동안 계속적으로 함남도당국과 총독부요로당국에 진정하고 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 축하야 자조·보도하고 잇섯는바 금번 총독부당국에서는 기수(技手)

厚地五一 伊藤滿夫 新井睿人 鄭仁和 金正讚

등오씨를 지난 육일 당지에파견하야 칠일부터 해상해저수면을 일일히 실지측량에 착수하엿는데 삼호주지배여명은 이를 환영하는의미로 천향원(天香園)에 초대하야 성대한 환영회가 잇섯다 이로부터 대망의삼호축항은 제일보를내어 드디게 되엿스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의열성이 필요하다고한다

일오전구시부터 동조합두상에서 통제위원회(統制委員會)를 열고 토의하엿든바 결국통제출하는 지속할것으로 결의되엿스며 내지시장 화장문제에 잇서서는 내지각도시로부터 지정시장(指定市場)의 희망이 격렬하므로 우선 망도(廣島)복강(福岡) 두곳을 지정시장으로 결정하엿다

平壤公設『풀』 十日부터開場

【平南支社發】수영씨-즌을 마지한 평양부에서는 십일부터 기림리(箕林里)공설수영장(公設水泳場)을개장하기로되엿는데 입장료(入場料)는 어른오전 어린이이전이다

大邱府內電話 二千臺를突破

【慶北支社發】대구우편국(大邱郵便局)관내 전화가설자는 근래부세의 확장에따라 격증하는터로 지난번에 신규가입한수를합하면 이천명을 돌파하엿는대이로써 사급지(四級地)에 편입하게되엿다 이와동시에 전화요금도 종래의오급지 요금보다 월평균 오십전의 인상이 되라고하며 소화이삼년에는 가입자오천명을 예상하고 그때는 도수제도실시 자동전화를 가설케되리라고한다

重要懸案討議코저 聯合協議會開催

大南浦建設運動進捗

【鎭南浦】작년이래 대진남포건설의 제일성과아울러 진남포상공회의소에서는 제일선에서서 활약한 만화장 공장유치등운동에 맹렬한활동을 개시하는일방 진남포유지며사들로조직된 대진남포건설기성회에서도 실제운동에 만전을기하야오거니와 방금진남포에는 대소공장이 착착진출되고잇는한편 지리적으로보아대지무여지대로 가장유망한지대로 되여잇는이만큼 총독부당국을 비롯하야 각관계방면에서 진남포항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잇는이때라실로 대진남포건설의 실현기는 와다 유만부민은 총단결하여 실현운동에 매진할 시기인것이 사실이므로 오는 십일오후세시부터 부내각관직자와 대진남포건설기성회전원이며 기타관계자등 다수를공회당에 초청하고

一、最近의 港灣問題와 防水堤에對하여

一、工場誘致運動의經過

一、今後大工業港 運動에對하여

一、大鎭南浦建設期成會에關한經過報告

이상과가튼 진남포발전의 중대문제를협의코저 관민보관한 회든, 평북기성회장의명의로 안내장을발하엿다고한다 특히한만문제에대하여는 간기해군대좌의 보고와 그라문제에대하야는 선천이사의경과보고가잇슨후 아프로 실현운동방침에대하여 구체적방침이 토의되리라는바 금번이와가튼회합이 진남포에서 처음되는모임이니만치 그결과가비상히도 주목을끌고잇다고하며회합의명칭을 연합협의회(聯合協議會)라고한다

拓務次官一行에 懸案促進陳情

【城津】북조선시찰중의 팔각척무차관(八角拓務次官)수전재무국장(水田財務局長)일행은오일오후두시 길주(吉州)를떠나 자동차로래성(來城)하야 고교일본고주파(高橋日本高周波)의안내로 동사성진공장(城津工場)을시찰하고 망양정(望洋亭)에서휴게하고 성진항(城津港)을부감(俯瞰)한후 오후다섯시발차로경성(京城)으로 향하엿는데성진상공회(城津商工會)에서는 당면의중요현안으로 초미(焦眉)의급을요하는 성진항만수축 공사(城津港灣修築工事)의완성연도 단축과 방파제(防波堤)의 연장공사의조속착수와 도하성진어항재삼기수축(第三期修築)계수동에 대하야 이유를 진정한바잇다고한다

問題의苹果運輸 統制出荷는持續

大邱果物統制委員會서決議

【慶北支社發】금년도 대구사과(苹果)는 대풍이 예상되는터로 금년도 이십오만상의 출하를어떠케 처리할것인가 하는문제는 경북과물조합(慶北果物組合)에서 여러가지로 연구하여오는터이나 방금 출하통제문제가 미해결인채 잇는관계로 운수회사와의의협타합도아직되지안엇슴으로 이난문제를도의 하기위하야 지난

産業鐵道平元線은 老港元山의强壯劑

沈滯된港勢挽回의唯一한血路

全線開通에再飛躍을期待!

元山篇

원산은 조선유일의 천연적량항을 가지고서도 그개항역사에 반하야 부진의역을 준순(逡巡)하엿슬뿐 이러타할 비약을못하엿다 이러 노항원산에 강장제(强壯劑)가되며 동시에 갱생의 연원(淵源)이될 원산항발전에불후(不朽)의 금자탑이될 역사적사실이 등장하엿스니 그것이 칠만원산부민이 손꼽바 기다리는 평원철도이다 항구는 정지하야 잇는것이아니고 주위환경과 객관적정세에 의하야 늘움직이는 동적(動的)인것이다 교통기관발달에의한 배후지의활발한 경제활동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이항구다 원산항이 지금상황으로서 부진한다고해서 비관할것은업다 불원한장래에 평원선의 개통이라는 절호의기회가 올것이며 그리고 북삼선항이 문제된다하나 원산은 원산으로서의 특질이잇스니 그것을 살리면되지안는가 이말은 일본에잇서 항만의 권위자인 해군중장 팔각(八角)척무성 정무차관이 지난달하순 원산항만시설을 시찰한후 기자단에게 한이야기다 이팔각씨의 말에서보더래도 노항원산의 생명선이 평원선이며 이선을통하야서만이 상항원산을 살릴수잇는 강장제인것을 알수잇다 그러면 반세기이상인 오십구년을 마지한 노항원산은이 평원선을 통하야 얼마만한 비약적발전을 할것인가? 이곳에서 평원선이 전통될 래명년의 역사적사실을압두고 원산항을재검토하는동시 발전원산의 배양선(培養線)으로서의 평원선외산업경제를 일별하기로 한다

동해안의 호도(虎島) 갈마(葛麻)량반도가 남북으로 둘러싸여 어세일천연적방파제를 이루어 그 본해의 파도를 막고잇스니 그 안이 영흥만이며 원산항은 바로그만의 서남우에 위치하야잇스니 이것이 바로동양유수의양항만을 이루어논것이다 그리하야 서쪽에 장백산맥이 연연하게 이여잇고 뒤에는 장덕산록을끼고 시가지가 남북으로 기다라케 버러저잇스니 북부원산은 상항을 통하야 상업도시로서 발달하야왓스며 남부측은남하북상하는 한류와난류의 교류하는일본해에 면해잇스니 만큼 녯날부터 수산도시로서 동해안 어업의 중심지의 지위를확보하야왓다 그리하야 원산항의 성쇠(盛衰)는 언제나 이상두기간경제선(基幹經濟線)을따라 진퇴를가치하여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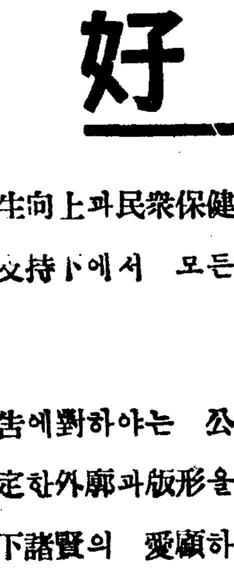
그런데 원산항은 남으로경원선 북으로함경선 동으로 동해안선등육지교통망의 정비에 정비례하야 상세권(商勢圈)이 확대되여지며 지지하나마 상업의 발달이 잇섯스며 따라서 거리와시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원산의수산물은 민속한 수송력을 통하야 활발한축인이 시작되엿다 그러나 이상은 원산의 상업 수산의 발달에다소기여가되얏슬망정 그비약적인 발달은이루지못하얏다 그러므로 원산을 갈든지 약동이업는 부진항이라일커르는것도 무리는 안일것이며 왕왕히 "북선삼항"의 약진에 놀니워 그존재가치의 과소평가를 보게됨도 근거업는 수작이안인것을 알수잇다 이러한 원산의 객관적정세는 대기업의 유치운동을 보게되여 소화십일년 가을에는 일천만원의국재회사인 조선석유회사가 갈마반도입각에 자리를잡고 들어안게되엿스며 금년봄에는 주우(住友)제련소가 원산교외인 문평에 들어안게되여 노쇠한원산에 무역, 상업에 보약적(補藥的)효과를 주고하얏다 그리하야 원산은 어상세출기 경제선의 신축을반영하야 일진일퇴를한다 즉도시발전의 집중적표현인 최근의 인구동태를보면 소화삼년에서 칠년까지에는 일증일감을 하야오다가 소화팔년을 게기로상승하야 소화십이년에는 소화이년말의 칠할여로 증가하얏스며 무역도 대정십년에 일천만원대를 돌파하야 이래 일이일장(一弛一張)을 보이다가 소화삼년도에 삼천사백만원을 절정으로 다시 소화구년까지 하향선(下向線)을 더듬고 동십년도에 가서 다시 삼천육백만원대로 올리갓스니 이것은 조선공장이 들어서면서엿고 다시 작년말에는 수이입 일천육십팔만여원 합계오천칠백칠십팔만여원에달하야 동십일년의 이할유분이라는 증가율을보여서 우보적(牛步的)이나 원산의발전상을 반영하엿다 그러나 전자는 토목사업관계와 이에수반하야 농촌의 피앙인구가 만여로증한데서 후자는 물가고와 특수화물의 통과등에도 그증가의 이유가잇슬것이며 해산물수양고는소화십년이 사천팔백육십유만칠천유백오십팔키로롬(瓩)에 백칠만오천팔백육십칠원이든것이 십일년에는 사천팔만삼천삼백팔십사키로롬에 백사십삼만칠천이백구십팔원으로 감소되엿는데 감소의원인은 직접흉어에잇다하지만 교통망의 정비에의하야 원산에 집중하든 어획물이 어장부근어항에서 직접철도편으로 수요지에 반출하는 영향도잇슬것이며 공산액은 대공장의 진출과함께 연년증가를 보여 소화십일년도는 사백삼십구만사천팔백구십여원에 달하야전년도보다 약팔십만원이 증가하얏고 전전년도보다는 백만원이상이 증가되엿다 그러나 북조선에서 인구로보아 늘수위를차지하고잇다가 금년부터는 신흥도시청진(淸津)한테 북조선으로서의판국을 빼앗기는불운에 처햇다 이와가티 양항임에 불구하고 전면적비약을 못하고 부진상태에빠저잇는 원산항의 유일한활로(活路)는 서부진출(西部進出) 즉 평원선 만포진선을거처 중만입대의 예선및 배후지를 획득하야 상세권을확대강화하며 문화의집산을일층 효과적으로 집약화(集約化)시기는일방 이리하야 노항원산은 개생의일약을꾀할방도가 남아잇슬뿐이다 보를내드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원산이 평원선의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전동을 촉진하는것이다

寫眞은 元山市街와港口一部

元山支局 卞龍甲記

恩給
低利時立替
照會大郞詳細
三回京城鍾路三丁目七七
三丁目派出所뒷골목
鄭商會

百日咳에
ステデコ
먹기조코効果一等
(定價二十錢부터 藥店에잇읍니다)
東京 岡崎三省堂藥房 大阪



青年諸君! 光明ハ技術カラ求メヨ
時ハ非常時、本所ノ義務ハ報國運轉勇士養成ニアリ
最大ノ設備ト最大ノ歷史ニ輝ク權威アル本所ニ今直グ入學アレ
本所ノ講師ハ自動車學東代表的名講師尹用圭先生ヲ今回迎ヘタリ 學則無料進呈
京城府西大門町二丁四七
朝鮮第一自動車學院

好事多魔

柳韓洋行은 衛生向上과民衆保健의 趣旨를가지고 十有餘年間盡心努力한以來 社會諸賢의 莫大한指導와支持下에서 모든方面에 一定한政策과實行方法으로 一路邁進하고잇슴니다。

그中에特히 廣告에對하야는 公正 非誇張의 科學的理論으로써 內容을紹介할뿐아니라 一定한形式 即一定한外廓과版形을專用하야 우리의信用性을象徵하는 廣告의形式을取하여온바 多幸히滿天下諸賢의 愛顧하신바되야 柳韓의廣告를 바로認識하시고 그內容을信用하여주심에對하야는滿腔의謝意를表하나이다。

그러나 好事에는多魔라! 近日의新聞廣告中 우리柳韓廣告의外廓 體裁 版形 甚至於는 文句까지模倣하야 惑世之策을弄하는것이有한듯하오니 諸賢은 柳韓發賣品의廣告가아니면서 그內容과 形式等을模倣한廣告에 十分注意하심을바랍니다。이것은 오직柳韓을支持하시는 諸賢의迷惑과損害를 防止하려는微衷에서 謹告하는바입니다。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 大連 上海

重要鑛物增産令 六月十日부터實施

◇…七日에施行規則公布!

重要鑛物增産令은 來十日부터 實施케되어 지난七日府令 第百三十三號로 同令에伴한施行規則이 公布되엇는데 其施行規則은增産令 第四條及第五條의 規定及其手續을 規定한것이다 即前記條文을 摘記하면

第四條 重要鑛物의 增産을圖하는者는 이를爲하야 必要로하는鑛業權의讓渡又는 隣接鑛區와의間의 鑛區의 增減에 對하야 當該鑛業權者로서 總督이 定한바에依하야 協議함을得함 前項의協議를 할수없고 또는 協議가不調인時는 重要鑛物의 增産을圖하는者는當該事項에對하야 總督의 裁定을 申請함을得함

第五條 朝鮮總督이 重要鑛物의 增産을 圖키爲하야 必要하다고 認定할때는 鑛業權의讓渡 又는 隣接鑛區와의 間의 鑛區의增減에 對하야 當該鑛業權者에對하야 重要鑛物의 增産을圖하는者와 協議할것을命함을得함

鑛業權者 前項의 協議를하지안커나 不可能하거나 또는 協議不調인時는 總督은 當該事項에對하야 必要한決定을함을得함

이가티 必要鑛物의 增産을 圖키爲하야 强力한 權限을 總督이 쥐게되어 戰時下에 잇서서 所要物資를 動員케하는것으로半島鑛業界의 飛躍的 活動이 期待되어잇다

重要鑛物增産令施行規則의 全文은 如左하다

施行規則全文

第一條 重要鑛物增産令(以下增産令이라稱함) 第四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는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할때에 限하야 이를行함을得함

一、當該鑛業權者가 事業에着手치안코 또는 休業中인때

二、鑛利保護上必要잇을때

三、合併施業其他作業의 合理化를 爲하야 必要잇을때

第二條 增産令 第四條第二項의規定에 依하야 朝鮮總督의 裁定을 申請하는者는 第一號樣式에 依하야 裁定申請書正副三通을 朝鮮總督에게 提出할것

當該鑛業權又는 登錄한 擔保權을 有하는者(以下關係人이라稱함)가 잇을때는 前項의規定에 依한 副本外에 關係人의 數에依하야 申請人의副本을 提出할것

第三條 朝鮮總督이 前條의 裁定申請書를 受理하거나 또는 增産令第五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야 協議를 命하엿을時는 當該鑛業權者에 對하야 裁定의申請又는命令이 잇섯다는事實의 登錄을함

第四條 朝鮮總督이 第二條의規定에依한 當該申請書를 受理한時는 當該鑛業權者及 關係人에 其旨를通知하고 期限을指定하야 意見書의提出을 命할수잇음

朝鮮總督이 增産令第五條第二項의規定에依하야 決定하려고할時는 期限을指定하야 關係人에게 意見書의提出을 命하는일이잇음

前二項의期限內에 意見書를提出치안코者는意見이업다고看做함

第五條 裁定又는決定에는理由를附함

裁定書又는 決定書의 謄本은 이것을 申請人 鑛業權者及關係人에게 交付함

第六條 裁定又는 決定에依한 對價를 支拂할者 對價의 全部의支拂 又는 供託을한때는 其百를 朝鮮總督에게 屆出할것 前項의屆出과 同時에 當事者는 出願하거나 또는 書留便으로써 登錄稅를 納付할것 登錄稅의 納付書에 收入印紙를 貼用하야 이를行할것

前項의 登錄稅納付書는 書留郵便으로 提出하는때는 郵便物의 表面에 登錄稅納付書在中이라는것을 朱書할것

第三項의 登錄稅納付書에는 對價의全部의支拂 又는 供託의 事實을證明하는書面을添付할것 裁定又는決定에依한 對價의 全部又는一部의 支拂에對하야 延期를承諾하는時는 當事者가 連署하야 其旨를朝鮮總督에게屆出할것

前項第二項乃至第四項의規定은 前項의場合에이를準用함

第八條 朝鮮總督이 第六條第一項의規定에依한 屆出을受理한時는 當該鑛業權의移轉又는變更의登錄을함

朝鮮總督이 前條第一項의規定에 依한 屆出을受理한때 亦前項과 同一하다 이境遇에잇서서는 對價의支拂을바들權利가잇는者를 爲하야 移轉又는 變更이잇는 鑛業權에 對하야 抵當權設定의登錄을함

第九條 增産令第九條 第一項의期間內에 支拂又는 供託이업을때는 當該鑛業權者는 僞[illegible]

[illegible]

第十條 左의各號의一에 該當하는 때는 [illegible] 提出할것

一、裁定의申請을 [illegible]

二、第八條의 規定에依하야 [illegible]

三、增産令第九條 第二項의 規定에依하야 裁定又는 決定이 其效力을 喪失하엿을때

第十一條 增産令第十三條의 事業計畫은 第二號樣式에依하야 每年一月一日부터 十二月三十一日까지의 分을作成하야 其前年十一月三十日까지에 이것을朝鮮總督에게 提出하야 認可를바들것

第十二條 左에揭한境遇에 잇서서는 朝鮮總督은 申請書屆書又는登錄稅納付書를受理치안흠

一、裁定의申請이 第一條各號의 一又는 增産令第四條第二項의 規定에該當치안흘때

二、裁定申請書가 第一號樣式에 [illegible]

三、第六條第二項又는第二項의 規定에依하야 [illegible]

四、第六條第五項의 [illegible] 又는 第九條의 規定에依한 [illegible]

五、第七條의 規定에依한 [illegible]

第十三條 重要鑛物을 目的으로하는 鑛業權者가 法人인때에는 每營業期間經過後 遲滯업시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營業報告書 損益計算書及利益의 處分에關한 書類를 朝鮮總督에게 提出할것

第十四條 本令의 規定에依하야 行한手續 其他의 行爲는 鑛業權者又는 關係人의 承繼人에對하야서도 其效力을有함

第十五條 本令의 規定에依하야 命令又는 通知를 送達할 境遇에 受信人의住所가 不分明할때는 送達할書類의全文又는其要旨를朝鮮總督府官報에揭載함 이境遇에 잇서서는 其揭載를 終了한날부터 七日을經過한때

第十六條 [illegible] 增産令及 本令의規定에 依하야 [illegible]

附則

本令은 朝鮮重要鑛物增産令施行日부터 이를施行함

重要鑛物에「螢石」指定

螢石은 製鐵、製鋼中알미니움工業、琺瑯硝子製造等 諸工業等에 不可缺의 重要資源으로 國內需要는 大部分은 支那、滿洲等海外에서供給밧고 잇기때문에 最近朝鮮의螢石鑛業은 자못重要視되여 來十日부터 施行豫定인 朝鮮重要鑛物增産令에도 螢石을重要鑛物로 指定함에이르럿는데 螢石은全朝鮮到處에 存在하엿는바 特히江原 忠北 全北地方의것은品位五〇―九五%라는 優秀한것일뿐아니라 埋藏量도 相當히만허 再昨年은年額八千噸의生産을示하엿스므로 總督府에서는 다시 一步를나아가 積極的增産에 邁進할 方針으로 現在多數의出願도잇서 昨年까지 겨우十五六萬屯에 不過하든螢石鑛區는 今年中에는 적어도二十萬屯以上에 達하리라한다

京畿繭共販開始

初賣買는品質良好

優等繭三圓四十五錢

今年의春繭價格協定은 米國財界의動向과 國內의高物價、事變下의 取引圓滑을期하는 見地에서 協調的으로 前年보다 十圓高의二百五十二圓으로 決定된것은既報와갓거니와 共同購入의繭價는 每日橫濱生絲當限先限의 平均價를 計算하야 各郡農會에 電報로 通知하야 그날그날의繭價를算出하는바 京畿道農會에서는 今月八日부터 七月十日까지 道內各部六十個所에서 繭共同購入을 施行하는데 其中에 京城府、利川郡、安城郡、驪州郡은今日부터 購入을開始하엿다 連日繼續되는 曇天으로 桑葉發育이 順調롭지못하야 퍽憂慮하엿스나 初賣買의 繭은豫想以上으로 良好하야 모두가 特等一等級에 屬하는것이엿다

이가티 農會에서 購入한繭은 優等과 特等 一等 二等級만은 片倉과 鐘紡에 配定하야 外國에 輸出하는生絲를 製造케하고 三等級以下는 國內消費用으로 玉絲工業組合等에 配給한다고한다

初日의 繭價(一貫)는아래와갓다

優等	三、四五錢
特等	三、一八
一等	二、九二
二等	二、六五
三等	二、三九

京城市內에서 繭을共同販賣하는곳은 高陽郡農會構內와 龍山南海鹽絲商會의 두곳인데 京畿道農會員이나와서 購入코잇다 그리고共販에 가장만히나올것은 十二日乃至十八日頃으로推測된다한다

(寫眞은 龍山南海鹽絲商會로共販하러가지고온鹽繭)

小賣商店經營研究會를創立

京城府內의 商店界는 事變下의 經濟變動을 契機하야 伴하야 小賣商經營上에 種種의 變革이 要求되어 이미 一部인테리 店主間에서는 研究의 題目이 되여잇섯는데 今回本吉兵次郎氏外五名의 發起下에 商店經營研究會가組織되게되여 來十一日午後三時부터 商工會議所에서 創立總會를 開催케되엿다 그리고同研究會는 京城府內에서 小賣商을 經營하는者로써 組織하야 左의事業을 行하는것이다

一、商店經營에關한調査及研究

一、商店經營資料의蒐集

一、其他必要하다고認定되는事項

經濟界消息

○中央物産總會=中央物産에서는 來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同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할터인데 配當은 一割据置

近 國體預金이 特히 增加되엿는데 其他個人의 預金도 增加되고 또 一般銀行에 잇서서도預金口數가 著增된것은 貯蓄的預金이 增加된때문인바 今後如斯한 定期的預金이 增加되면 銀行預金은더욱增勢를伸하리라한다

朝鮮産綿織物 滿洲北支로輸出激增

綿織物의 滿洲 北支向輸出은最近激增되어 滿洲向은 一月부터五月까지에 一千百二十六萬二千圓에 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三百八十三萬一千圓 即五割의 增加이오 北支向은 十二年中合計가겨우 六萬圓이든것이本年一月부터 四月까지에 九萬圓 五月에入하야서는 一躍百二十二萬六千圓의 巨額에 達하얏다 滿洲向은 綿織布의 對滿輸出禁止가 影響된것도 考慮되나 滿洲北支의 明朗化가如實히 反映된것이오 特히 北支向의 激增은北支市場의 朝鮮産綿織物의 有望性을 證左하는것이라하야 關係方面은 多大한期待를가지고잇다 前記數字에는 僅少의 內地品의 經由輸出을 包含하얏스나 그것은 問題가안된다한다

貯蓄獎勵貯金增加

國民總動員運動인 貯蓄獎勵는

移入貿易新記錄

五月中移出도增加나

機械類、肥料等移入增加

五月中 對內地貿易은 移出六千五百九十二萬三千圓、移入八千六十四萬九千圓으로서 前年同期에比하야 移出은 千八百二十九萬九千圓이 增하고 移入은二千四十二萬三千圓이 增加되어 移入은 過去의 最高記錄인 四月의 七千八百二十九萬圓을 突破하고 이어서 新記錄을 示하얏다 前年同期에 比하야 增加된것은 移出에 잇서서는 米、肥料、無煙炭 移入은 機械類、肥料、肌衣로 減少된것은 移出品으로는 生絲、硬化油、魚油 移入品은 棉花、裸麥、絹織物等인바 移出入均衡은 入超千四百七十二萬五千圓으로 前年보다 二三%五四의 入超減이엇다

株式 頑强이나 伸惱

今日의市勢(八日)

前場堅强 昨日 國府部內의 停戰論擡頭說 米國弗貨平價切下說等을入하야 硬化되고 後場一息狀이된 市勢는 今朝의外郎의反撥와 小口利喰物로 東新一低 鐘紡三低의 鈍狀裡에寄付하고 그後도 多少軟味를보엿스나 場面만閑散할뿐 市勢는자못底强하야 容易히低價를 不許하는 光景이엇고 高價買物은 依然하야 上海로도한 容易치안어 結局東新百五十圓七 鐘紡二百五十一圓에 大引되다

後場伸惱 後場엔 東新不變 鐘紡一低로 寄付한後 依然動搖裡에 小幅浮動裡에 膠着하야 伸惱狀이엇다

材料待로强保

開封陷落에 이어서 鄭州를包圍하야 그陷落도 時間問題라는 消息이 잇고 漢口政府部內의 動搖는 漸甚하야 停戰說 兩下野說等을 傳하야 財政權欲說도 不選일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確實한 動向을 알길이업고 英佛蘇等의 對日牽制를 猛 한策謀도 依然不絕하는것等으로 因해서 人氣는 硬化하고 市勢는 底强하면서도 動機다운 動機에 援하지 못한까닭에 高價가高價를 부르는 買煽場面은 보이지 못하고 東新百五十圓關門을 中心으로 再次 底固保勢의 揉合을 거듭하게 된것인데 材料다운 材料가 업는限 이數日은다시 여기서 구둘거릴는지도 모르며 따라서 少押程度의 押目을 보일는지도 모르나 深押은 업슬것이오 環境的勢는 漸次그 熱度를 昂揚하고잇는 氣味이므로 이것이 沸騰點에 達한데에 버로소 漲發할것이라고 漫然弱氣를 警戒하는側이 不少하다

雜株에買氣!

徐州陷落以後의 情勢良化로東新을 中心한 主力株의 儼然한 先驅的 昂騰과 增資思惑을 纖込한 鐘紡의 底强狀等으로 所謂投機株는 堅强하엿스나 利潤의 低下와 增資影響과 株過剩傾向으로 雜株는 依然商狀을繼續할뿐이엿는데 最近藏相更迭以後의 政府財經策에對한 期待와戰局의 運勞과利潤昂揚에依하야 雜株의賣餘地도 疑問視된는데서 漸次雜株도 低價에는 實物이潛在한모양으로 今朝에는 朝鮮의 人十圓 大黑依復金鑛興業、日糖、日魯等諸雜株의硬化모양을 보여 여方面에 注目이 集中케되엇는데 萬若雜株가 底固한다하야 株價는 主力株에 追隨하야 再出發하는데잇서서는 반드시 株式의一團活躍을期待할수잇을것이므로 어雜株의動向은 主力株以上으로 關心을가지지안을수업을것이다

國債閑況

【東京電話同盟】日銀所持債의 賣行은頗續好調를 傳하고잇스며 期末金融의 平穩豫想으로 人氣堅調하나 다시事變公債發行을압두고 買物이러어 겨우佛貨가五錢少高된외에는모두膠着商狀을示하엿다

◀佛貨四分 一九八〇五

期米 商狀膠着 保勢

前場强保 今朝는 曇天으로 阪地先限三十五圓二十八錢인二丁反高를報하고 當限賣買不成中限은三十二圓三十二錢인 一丁低로 先限은三十二圓五十錢인 昨止同樣으로寄附한後 阪地四五節二十五錢으로 七節二十八錢으로 返戾하야 四節四十八錢으로 小弱하엿다가 結局阪二十九錢을 入하야 四十八錢에 止寄함

後場弱含 後場은 三十二圓四十八錢인 不變裡에 給寄한後 二節四十八錢 三四五節四十七錢으로底堅裡에 細刻이엇다

分岐는移秧後

據近內鮮各地의天候는 無類의好順을呈하야 內地는關西東北地方의植付樂觀의 聲歡을呈하고 朝鮮은 南部地方의水害로 苗板이 潰滅狀態이어서 農村의憂慮가업지아니한모양이나 此는一部에止함으로 그다지큰念慮는업시 補充策으로 植付가完了될것갓고 中部以北은바야흐로植付無難의好成績을 보히고잇다 이와가티各地의 樂觀狀態이에도不拘하고 市勢가 强硬함은 鮮米의入津稀薄과 產地의賣惜을叛低로함이엇스나 此는 一時的强材로 豊作의暴騰米를 强硬親할수업고 產地의賣惜方針은 好順氣를 呈하는 今日에 永久히 固執할이라고 謂키는難하다 그러한모든 關係로보아서 어느程度까지의 又復一高를示할지는몰으나 植付가完了되고 纖續하야 靑田賣의 時代에入하는때는 實米의事情如何를不拘하고 一大反動落을 免치못할것으로 觀測하는편이多하다

賣方은持久戰

昨年新穀期에入하기前부터 今年三月까지即七個月間의 續騰으로 阪地三十五圓八十錢 當地三十三圓十九錢의 最高價를보이든後 四月은低落一貫、五月은一騰一落 今月은 繼續하면서 一路向上으로 五十丁餘의 高價를示하야 去三月의天井을지키後부터 三個月間의步調는 結局大天井을繼續하고 如히 一張一弛로 時日을費하는 이다 買方으로서는 臺灣米의入津稀薄이니 農家의賣惜이니하는等의材料를 標榜하고잇스나 그러나 此는一時的條件에不過하다 此邊에서 어떠한程度까지의 紛騰을示하지는들으나 去三月의 天井은容易히 上廻하지못할것갓고 畢竟植付完了後에는 樂觀買物이 現出하야 어느程度까지의 反落市勢가 必至할것으로 觀測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賣方의主力側은 儼然不動하고 大賣物을擁抱한그대로 多少의昂騰을 是認하면서식持久戰을 策하는光景이다

市場小感

(株)昨日의 昂騰後 今朝寄付의 鐘紡反弛로 市勢는鈍狀이 되엇스나 그後 다시堅强狀을回復하야 地合은 자못 堅强 ▲人氣가强한代身에 買煽이안되는것을보면 動機도 動機려니와 仕手는 依然 消極態度인것이分明 ▲上型도長格이면서도 大衆도아직追隨하지안는도처 ▲아직伸力이不足하고 市勢의熱度가未熟? ▲賣方에 恐怖를줄만한 大材가 出現하야賣込物이 踏物化한때에 버로소高價를불관 ▲그러나 그러라고押目의深度가 豫許일가하고反問하면 어는매우 寂寥할관이니 賣의妙味는毫無 ▲或은漸騰步調로 賣方에安心을주면서上進? ▲如何든 人氣는强하나材料가不足한場面이니 可謂期報를 苦待하는場面 ▲大地와山谷의 氷雪이 녹엇스니 작드고꼬리는 時節도머지안켓지……

(米)……一氣로五十丁의棒上을보인後에도 市勢는依然强調 ▲勿論又復一高는免치못할듯한데그昂騰의程度가얼마나 何如할지疑問 ▲滿鮮市勢가强硬하기때문에 産地의賣惜方針은 又一層緊張하고말아서 正米의 高價가돌이혀 淸算市勢를頑强케하는光景 ▲그러나植付가바야흐로順調로進捗되는今日에 반드시買方針만을 固執한다고할수잇는걸까 ▲要하면上對면 正米一圓程度로보다 面下勢는 後百丁으로본것이 妥當 ▲그러나時期가時期이만치아즉暴落은업다할지라도 賣方은持久時代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米國金買上價引上說과影響

米國의 弗平價切下、金買上價引上說에對하야서는 有力關係方面에서는 單純한 風說이라하나 이것이 產金界에 及하는影響은 相當히 複雜한듯하다 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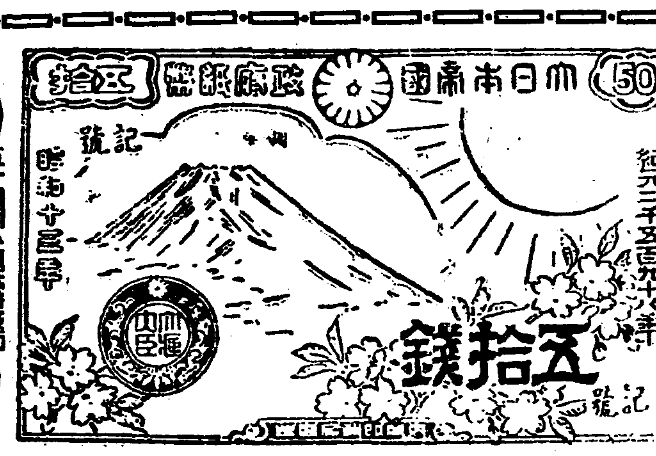
一、傳하는바와가티 現行一온스三十五弗을 四十一弗로 引上케되면 그自體는 金의前途樂觀好材料이다

一、從하야 新產金業은 새로히拍車를 加하겟고 低品位金鑛도採算이 有利化한다

一、그러나 그反面、產金의退藏乃至賣惜傾向을 招致하게되리라한다

臨時通貨法

內外地一齊施行



五十錢의小額紙幣表面
十錢、五錢、一錢의補助貨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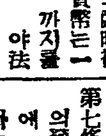
臨時通貨法은 法律第八十六號로써 昭和十三年五月三十一日에 公布되어即日施行되엇고 臨時通貨法을朝鮮、臺灣、樺太에 施行할件도 勅令第三百八十七號로써公布되어 亦是五月三十一日부터施行되엇는바 八日付朝鮮總督府官報로發布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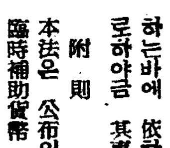
▲法律第八十六號 臨時通貨法

第一條 政府는 必要잇는때에는 貨幣法第三條에 規定하는것外에 臨時補助貨幣를 發行함을得함

第二條 臨時補助貨幣의 種類는 十錢五錢及一錢의 三種으로함

第三條 十錢及五錢의 臨時補助貨幣는 五圓까지 一錢의臨時補助貨幣는一圓까지를 限하야 法貨로通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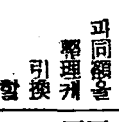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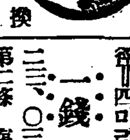


第四條 臨時補助貨幣의 素材、品位、量目及形式은 勅令으로이를定함

第五條 政府는必要잇는때에는 臨時補助貨幣外에 五十錢의小額紙幣를發行함을得함 小額紙幣는十圓까지를限하야 法貨로서通用함 小額紙幣의形式은 勅令으로써定함

第六條 政府는小額紙幣發行高에對하야 命令이定하는바에依하야 日本銀行으로하야금 政府預金中에서 이와同額을 區分하고 其準備에充하야 이것을整理케함 小額紙幣는 臨時補助貨幣로써 이것을引換함





第七條 小額紙幣의發行、銷却及引換에 關하야서는 大藏大臣이定하는바에 依하야 日本銀行으로하야금 其事務를取扱케함

附則

本法은 公布의日부터 施行함

臨時補助貨幣 及 小額紙幣는 支那事變終了의日부터 一年을經過한後는 이것을發行치아니함

▲勅令第三百八十七號 臨時通貨法은 朝鮮、臺灣及樺太에施行함

附則=本令은公布日부터施行함

▲勅令第三百八十八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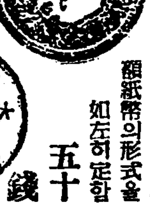
第一條 臨時通貨法第四條의規定에依하야 臨時補助貨幣의 素材、品位、量目及形式을 如左히定함

十錢 素材=알미니움靑銅、品位=銅九百五十分、알미니움五十分、量目=四瓦、徑=二十二미리메돌、孔徑=四、六미리메돌

五錢 素材=알미니움靑銅、品位=銅九百五十分、알미니움五十分、量目=二、八瓦、徑=十九미리메돌、孔徑=四미리메돌

一錢 素材=黃銅、品位=銅九百分、亞鉛百分、量目=三、七五瓦、徑=二三、〇三미리메돌

第二條 臨時通貨法第五條第三項의規定에依하야 小額紙幣의形式을 如左히定함



紙幣 寸法=堅六五미리메돌、橫一〇五미리메돌 用紙=浪形凹漉 表面=文字及上部模樣 黑地紋 上半部 橙黃色 下半部 靑色 印章及記號 赤色 裏面=模樣 暗綠色

五十錢

今日財界(八日)

◆米 (單位錢) 今日前場 (前日後場)

仁川期米先限	三一三三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三五二八	[illegible]
京城一等米(一石)	三一〇	不變
白米(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고무 F A Q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朝鮮	[illegible]	[illegible]
東新	一五〇七	[illegible]
鐘紡	二五一	二五〇
大阪三品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主三等 三二、〇五 四等三二、八五 一等白米一二、九〇

木浦保合

地方의 鮮米는 最高潮에達하야 東地와의交涉은 全然杜絕되어 出廻는 極無이기때문에 市中賣物은 적으나 順氣로 高價는 不賣하며 內地의照會도 依然高價 引合에保合氣潛在나 市勢前値同樣으로保合이엿다 ㊥銀坊主三等三三、三〇 四等三三、〇〇 一等白米一二、九五

輸入屑鐵一元統制

【東京電話同盟】輸入屑鐵의 統制機關인 輸入屑鐵共同購買會와 內地屑鐵購入統制機關인 製鋼原料購入會는 內外屑鐵購入의 一元的統制를 期코저 先般來 一元的統制를 確立키爲하야 具體的 協議를 하얏스나 成案을 得하얏스므로 業務를執行키로되엇다

正米 一息이나 底堅

京城一息

奧地는依然賣物을迷하야 市中은 品薄으로 自然人氣强硬하야 低價에는 賣物이업고 移出側과 當用側의 白米買付가 조금敬遠되나 出廻薄으로 活氣를 缺하야 淸算의小浮動과함께 市勢는 不變이엿다 ㊁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三、三〇

仁川不變

依然緩慢하야 所持側의伸惱로 買方도傍觀態度이엿서 纖續鄭重商狀을呈하야 大體로昨日과不變唱이엿섯다 ㊁穀良三等三二、七〇 四等三二、九〇 銀坊主三等三三、一〇 多摩錦三等三三、三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三、二五

釜山不動

依然한內注不振으로 買氣는消極圈內를 彷徨하야 無店氣商狀을 示하고잇스나 奧地는品薄에따르로 低價에는賣惜이 溢하는 現狀이여서 無得低는希望이여 賣方이모두 新强力動機待로 一息保合이엇다 囝穀良三等三三、六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三、三五

群山强保

一雨마다 用水沾潤澤하야 移秧樂觀說은 處處에傳하야 用水不足念慮가 一掃되고 蓬萊米等의 軟材料도相當이잇스나 奧地農家의 最高調에達하야 到高正租는 全然市中에는 絕無狀態가되여 人氣도 多少强硬化하야 賣物薄과 定期堅强狀을보고 低價買拾도 多少잇섯스나 結局市價는前價同樣의 强保合이엇다 ◎銀坊

大邱底堅

賣物薄과 產地의强硬을 入하야 市中氣配도따라 不變裡에 底堅 保合이엿스나 나 低價에는 買氣潛在하야 目前一段高를 豫想하고잇다 囝穀良三等 三三、九〇 四等三三、七〇 一等白米 一三、三五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銀行券 七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醬油粕·麥粉

◆阪神醬粕◆ [illegible]

◆阪神醬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以上朝鮮銀行調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主要取組高◆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八日)

[illegible]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京城·證券部·米期部·仁川 福 吉村取引店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長 一九六一 二一五五 六九三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